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 세대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2월 10일 (토) 제 161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공동주거, 미국가정 새 대안으로 부상

#### CT, 증가하는 '코하우징' 현상에 따른 이해와 교회의 준비 보도

미국에서 전통적인 가정은 '핵가족'이었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다른 형태의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nuclear family)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때는 1949년이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핵가족은 미국의 전통적 가정을 의미하게 됐다.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가사를 돌보는 게 핵가족의 일반적 개념이다. 핵가족은 미국사회에서 일종의 도덕적 불문율이었다. 부부와 어린이로 구성된 가정이 정상적 가정이고 여자 홀로 어린이를 키운다거나, 다른 형태의 가정은 비정상적으로 간주됐던 것이다. 한마디로 핵가족 형태가 아닌 가정은 그 도덕적 기반까지 의심받던 게 미국사회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통적 가정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2014년 '타임'지는 한마디로, 미국에서 핵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을 정도(There Is No Longer Any Such Thing as a Typical Family)로, 핵가족의 붕괴는 정점이 됐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핵가족이 사라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 즉 싱글부모와 자녀, 캥거루족(부모 집에 얹혀사는 성인자녀), 동거 등등 중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동주거' 즉 코하우징(Cohousing)에 주목한다(Cohousing: The New American Family, How alternative forms of living are changing communities, challenging the church, and keeping millennials in the fold). 미국 사회에서 점점 늘고 있는 코하우징 운동의 원인과 이에 따른 교회의 도전과 준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밀레니엄 세대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코하우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도한다.

타입'지는 한마디로, 미국에서 핵가족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을 정도(There Is No Longer Any Such Thing as a Typical Family)로, 핵가족의 붕괴는 정점이 됐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핵가족이 사라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 즉 싱글부모와 자녀, 캥거루족(부모 집에 얹혀사는 성인자녀), 동거 등등 중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공동주거' 즉 코하우징(Cohousing)에 주목한다(Cohousing: The New American Family, How alternative forms of living are changing communities, challenging the church, and keeping millennials in the fold). 미국 사회에서 점점 늘고 있는 코하우징 운동의 원인과 이에 따른 교회의 도전과 준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밀레니엄 세대에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코하우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도한다.

### 진정한 공동체 찾는 밀레니엄세대 붙잡는 기회로 적극 활용

2000년부터 전통적 미국 가정 소멸 상황을 맞아 미 언론들은 본질적인 문제 지적을 회피했다. 핵가족 대신 자리 잡은 여러 형태의 가정들만을 소개했지, 왜 핵가족이 해체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문제의 본질은 정체성(identity) 상실에 있었다. 정체성 상실은 다른 아닌 물질적 풍요의 부산물이다.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풍요시대의 핵 인간'(nuclear man)이 보이고 있는 정신적 황폐가 미국 사회에 만연했고 그 결과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소리 없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을 한 사람은 역사심리학자 로버트 린튼이다. 그에 따르면 풍요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 다른 말로 하면 '핵 인간'은 역사적 단절, 단편화된 이데올로기 등이 특징으로 핵 인간은 자신을 역사나 전통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여겨 '지금 여기'(the here and now)만 중요시하는 세기말적 의식구조를 보인다. 이런 유형의 인간에 있어 삶은 치열한 결단이나 실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풍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할 때 이는 정신적 공황을 불러와 그 결과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창조



미국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정이 흔들리면서 공동주거 형태의 가정이 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인 주거형태, 같이 살면서 핵가족이 공급 해주지 못했던 의미와 필요를 구체적으로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코하우징"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됐다. 엘리스 알렉산더 전미코하우징협회 사무국장은 코하우징은 "공동 주거공간을 같이 나눠 사는 주거로 나눔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지속성에 중점을 두는 형태"라고 정

의한다. 연령에 따라, 코하우징을 선택하는 이유도 다르다. 부모들은 퇴도록이면 주거공간을 줄이고 홀로 산다는 고독감을 없애고, 어울려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코하우징 커뮤니티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3면으로 계속)

### "다양성 갖춘 역동적 사회, 개인이 더 풍요한 삶 누릴 수 있다"

#### 서구에 급부상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한다(3)

웨스터민스터신학교 교회사 수업 중 질의응답 시간에 칼 트루먼(Carl R. Trueman) 교수는 한 학생으로부터 오늘날의 교회가 왜 젊은 성도들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이 거론될 때면 보통 "세상의 유혹" 또는 "교회와 사회의 이질감"과 같은 답변이 가장 빈번히 등장한다. 하지만 칼 트루먼은 이 질문에 대해 가정교육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며 그가 통찰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였다(How Skipping Church Affects Your Children: The church is losing its young people because the parents never taught their children that it was important).

공화당 지도부는 그래도 한동안 경제 쪽을 강조해왔다. 공화당에 돈을 대는 부유한 기부자들이 대부분 리버테리언 성향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와 공화당 지지층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 그 격차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대선 후보에까지 오를 수 있던 건 자유무역, 낮은 세금, 규제 완화와 같은 공화당의 전통

살고 있으므로, 포퓰리스트들의 정치적 수사 뒤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다. 물자, 서비스, 정보의 세계화도 그 나름의 상처와 반발을 낳았지만, 사람의 이성은 더 강렬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물건, 사상, 예술, 요리에는 열린 태도를 보였던 서구인들도 외국인들이 직접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현상에는 거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류사 전체를 보면 인간은 자신이

### 이민자 유입대책은 동화와 통합, 안전망에 대한 투자 확대 차세대 미래에 큰 재난 없게 관리하는 것이 서구사회 과제

적인 구호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며, 문화적인 공포와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일찌감치 간파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여러 이슈 중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놀랍지 않다. 동성애자 권리와 같은 이슈는 우파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이 심할 정도로 이미 대체가 정해진 사안이다. 반면 이민 문제는 기독교를 적으로 돌리려는 포퓰리스트가 활용하기에 충분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실제로 대량 이민의 시대에

태어난 곳 몇 킬로미터 안에서 평생을 보내던 시대를 벗어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서구가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낯선 이들의 유입은 기존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투표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나 경기 침체보다 더 확실한 동기로 작용한다. 반면 상황이 다른 일본을 보면, 경기 침체가 25년째 계속되고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포퓰리즘 열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민자 유입이 적다는 것이 분명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9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교사 대우개선과 연대감, 소통강화로 개혁

5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짐 사모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 남가주 한인 목회의 미래를 조명해 보는 한인 목회자 모임

A Gathering of Korean/American pastors to reflect on The future of Korean/American ministry in Southern California

한인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동역자 여러분, 변화가 일상이 된 삶 속에서 한인교회의 사역은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 미래의 민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까요?

**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와 함께 그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뜻 깊은 질문, 영감있는 반응, 통상을 뛰어넘는 제안들을 기대하며 영혼의 양식과 친구가 있는 미니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날짜**  
2016년 12월 12일 (월)  
**시간**  
오전 9시-3시 30분

**장소**  
Plaza Room, Westin Hotel, Pasadena  
191 N Los Robles Ave, Pasadena, CA 91101

**주최**  
The 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  
**협찬**  
로스 란초스 노회, 샌 퍼난도 노회, 샌 가브리엘 노회 (미국 장로교)

**프로그램**

**"21세기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  
이승현 박사(현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세미나/토의**

**"신앙의 대물림을 위하여"**  
최훈진 목사(전 미국장로교 총회 Asian American Leadership Development)

**"미래를 위한 교육"**  
강일준 목사(현 미국장로교 샌퍼난도 노회 노회장)



# 교사 대우개선과 연대감, 소통강화로 개혁

## 뉴스위크, 인도 라자스탄 주 강그와르 교육장관의 교육개혁 성공 보도

인도의 15세 미만 인구는 3억 명에 이른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 어린이가 많다. 인도의 IT기술 붐과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거대 경제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미래의 노동력인 그 아이들 덕분에 인도는 급속히 발전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인도의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와는 다른 미래가 점쳐진다. 현재 인도의 초등학교 5학년생 중 약 절반은 2학년 책도 읽지 못한다.

그래서 인도의 교육 시스템은 "탈선된 열차"와 같다고 사람들

은 부른다. 그만큼 오로이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라자스탄 주 교육장관 나레시 강그와르(Naresh Gangwar)는 붕괴된 교육 시스템을 바로 잡았다. 바로 열린 정책 즉 공립학교 교사들의 대우 개선과 SNS를 통한 소통을 통한 연대감 증진으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교육 체제 전반을 정상궤도로 다시 올려놨다(MEET THE MAN FIXING INDIA'S BROKEN EDUCATION SYSTEM).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의 초등학교는 약 800만 명이다. 그래서 그 주의 교육장관 나레시 강그와르가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을 전공한 그는 2013년 취임 이래 공립 초등학교 학생 등록을 150만 명이나 늘렸다.

라자스탄은 인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다. 서쪽에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며, 남서쪽에 구자라트 주, 남동쪽에 마디아프라데시 주, 동쪽에 우타르프라데시 주, 북동쪽에 하리아나 주, 그리고 북쪽에는 펀자브 주와 맞닿아 있으며 주도는 자이푸르다. 아라발리 산맥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서부에는 타르 사막이, 동부에는 두 개의 국립 호랑이 보호구역과 케올라데오 국립공원이 있다.



**“탈선된 열차” 인도 교육시스템, 취임 2년 만에 궤도 진입**  
**100명 미만 학교 통폐합, 교사 재배치, 도시편중현상 수정**  
**공립교 개혁이 학생학력개선과 평등성 제고에 핵심적 동력**

이곳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직물부터 유명한 요리까지 자랑거리가 많다. 그러나 인도에서 7번째로 부유한 라자스탄 주의 교육 수준은 형편없었다. 2011년 문자해독률은 인도에서 가장 낮았다.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8년 동안 교사 임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이런 수년 간의 방치로 공립 교육에 좌절된 많은 학부모가 사립 교육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라자스탄 주의 학생 중 거의 절반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그중 다수는 학비가 싸지만 교육 수준도 형편없다.

이런 열악한 교육 상황을 뜯어고치기 위해 강그와르 장관은 가장 먼저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교사 수십 명을 사무실로 직접 초청해 오랫동안 무시됐던 그들의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임금 동결과 함께 승진 기회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팬층을 급여를 받으며 재배치에 응하면 보상도 받는다.

강그와르 장관은 교사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더 힘든 과제에 도전했다. 교사들을 재배치하고 도시 편중 현상을 해결하는 문제였다. 지난 10년 동안 라자스탄 주 시골에는 작은 공립학교가 많이 생겼다. 그러나 10만여 개의 학교는 거의 교사 1명으로 유지됐다. 시골 학교 대다수는 학생도 적고 교사를 채용할 여력도 없었다. 그래서 강그와르 장관은 학생 100명 미만의 학

교를 통합해 교장과 교사를 재배치했다. 인도의 교사들은 재발령을 원할 때는 의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게 관례였다(흔히 '상담'이라고 부른다). 강그와르 장관은 그런 관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기술에 정통한 그는 온라인 포털을 만들어 교사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그들의 실적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학교에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도의 배움재단 설립자이자 강그와르 장관의 양성평등 고문인 우르바시 사니는 "교사들이 나를 찾아와 교사의 품위와 자존감을 되찾았다며 기뻐했다"고 전했다.

강그와르 장관이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돋보였다. 그는 상황한 정책 공문의 회람보다 SNS를 통해 교육부 관리, 교장, 교사와 자유롭게 끊임

없이 의견을 나눈다. "그런 수단을 활용하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로 중요한 메시지를 기탄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라자스탄 주의 주도 자이푸르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와 비포장도로를 한참 내려가면 또 다른 초등학교가 나온다. "학교가 너무 많아 우리가 하나를 놓친 것 같다"고 강그와르 장관은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학교를 통합했지만 그 학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 학교의 통폐합 적합성을 조사해보라고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지시했다. 교사 훈련과 교과서 배포를 위해 라자스탄 주의 곳곳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그에게 SNS 메시지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 시론

## "광장(Forum)의 이상에서 빛의 절기로"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이 2016년 도 올해의 단어를 뽑았습니다. 영어로 "post-truth"(탈진실적) 즉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사회적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 세 번째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화여대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 시작된 사태가 대통령 탄핵, 하야까지 요구하는 상황까지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분노와 절망을 뛰어넘어 상실감과 자괴감마저 느끼는 이때, 조금이나마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눈물이 나오도록 애국심을 끌어오르게 해주는 글이 하나 있어 그중 일부만 소개합니다.

영국인으로 한국에서 15년 동안 특파원 기자로 일한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한국인은 1. 세계적으로 평균 IQ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2. 세계적으로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3.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세계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4.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 콧도 안 여기는 나라 5.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6.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UN이 제공한 문자인 한글을 만든 나라 7. 가장 단기간에 IMF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8.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서울) 9. 세계 4대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유일한 나라. 10. 인터넷 무선망, 스마트폰 보급 등등 초고속 통신망과 IT 기반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11.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수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2위 이스라엘, 3위 독일) 12. 한국인을 유테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13.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놈, 왜놈, 때놈, 러시아놈' 등 14. 약소국에겐 관대한 민족.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15.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2, 3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등등.....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운은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의 난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도약하리라 믿는다. 한국의 객관적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보다 큰 불행의 전주곡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하다. 하지만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믿는다. 한국인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까지 절대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힘내라! 코리아!

우리 한민족의 장점들과 저력을 이렇게나마 공감하니 은근히 힘이 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할 것은 오늘 이러한 한국의 발전적인 근대사를 이끌었던 견인차는 "한국의 기독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교회를 격정하고 염려한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조직지혈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약 6만 교회, 1200만 신자들, 13만 교역자들 중 얼마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불과 0.1%도 안됩니다. 물론 교회는 일반 사회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과 가치관을 갖아야 하기 때문에 0.1%도 그리 돼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0.1%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며 섬기는 99.9%의 건강한 교회들을, 성도들을, 교역자들을, 선교사들을 매도하여 도매금으로 넘기면 안됩니다. 속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은 사회에서 지탄받는 0.1%를 보고 같이 입을 거품 물고 비관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99.9%를 보고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오늘 끝이 안보이는 절망 속에서도 1903년의 원산대부흥운동과 1907년의 평양대각성운동과 같은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의 6만 교회와 1200만 명의 성도들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껏 한국 근대사의 발전을 이끌었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하여 한반도, 한민족,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어두움을 뚫고 도약하는 일에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스비"입니다. 모여 종일 금식하며 자기들이 저지른 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끄집어내어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미스비"(삼상 7:5-6)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 "에베에셀의 역사",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삼상7:11)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미스비"이고 하나님은 하실 일은 "에베에셀"입니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5,880여 한인교회가, 그 가운데 미국 안에 있는 4,250여 한인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긴급하게 간절히 "미스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에베에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 입니까? 바로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카오스', 혼란과 어두움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코스모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림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mailto: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 공동주거, 미국가정 새 대안으로 부상

(1면에서 계속)

밀레니엄들은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아주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집 청소까지 해결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30개 가정 이상이 같이 사는 160개 이상의 코하우징 커뮤니티들이 있다.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 다른 코하우징 단체(The Fellowship for Intentional Community)만해도, 미 전역에 1,556개 커뮤니티들이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에 소속돼 있지 않는 가정들 즉 대저택을 공동구매하거나 다가가 세대를 임대해 같은 가구원들끼리 진지하고 깊은 연대감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누락돼 있다.

기업들 역시 사람들의 요구, 즉 커뮤니티 지향적인 주거형태가 대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전문회사들(WeLive, Common)은 신문광고(The New Yorker)에 "가구들이 구비돼 있고 무제한 커피와 화장지가 리필되며,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자신들의 다세대 주택에 이사 올 것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코하우징에 몰리는가?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공동 주거 공간을 서로 나누면서 비교적 낮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기에 장점이 있다. 소득은 일정하고 물가는 상승하기에, 많은 사람들 특히 밀레니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해변가가 있는 도시들에서 집을 구입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코하우징은 현재 각광받고 있는 공유 형태 사업들, 즉 우버, 사무실 임대(Co-office) 그리고 여행지 현지 주택 임대(Airbnb)와 같은 반열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선 더 큰 원인이 있다. 사람들은 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잦은 만남들을 갖고 부대끼면서 살려고 하는가? 바로 너무 외롭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관계의 단절로 인해 만성적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관련 연구 결과는 이를 증명한다. SNS를 통한 사회적 미디어는 확대됐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불과 2명의 친구와 고만 중요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 역시 몇몇 교회들만이 이처럼 변한 세대 간의 요구나 필요들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은 전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별다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중 1/4 정도가 혼자 외롭게 살고 있고, 자녀 없이 살아가는 성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 사역들은 정상적으로 자녀를 둔 기존 가정만을 모델 사역으로 상정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사회는 점점 더 비인간적인 경향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교회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 계정을 만들어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 형성과 소속감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퓨리서치는 "주로 크리스천들이었던 나이 든 성인들 대신, 공동체 소속감이 약화된 젊은 성인들의 새로운 연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한다. 한마디로, 밀레니엄들과 같이 기존 조직화된 종교에서 떨어져 나간 젊은이들은 코하우징과 같은 대안 형태로 진정한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교회공동체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결국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친절과 환대, 진실함,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환대"는 바로 교회가 최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좀더 구체적으로 난민들이나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노숙자나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환대는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천이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도구"라고 노스캐롤라이나 무함메드는 국제적 크리스천 공동체인 루타

(Rutba) 코하우징 멤버인 윌슨은 말한다.

그만큼 환대는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이지, 결코 프로그래밍하거나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통해 설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따뜻한 한 잔의 커피나 스파게티 한 접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경적인 첨단기술은 바로 대형스크린이나 확성기가 아닌 바로 따뜻한 음식과 물이 담긴 접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밀레니엄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즉 환경 훼손,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인종간 극심해지는 갈등 등을 보고 자라난 세대다. 동시에 최고는 아니지만 살아가기 위해 미 전역을 돌면서 직장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뿌리 없음과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교회는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돼줘야 한다.

해가죽이 제공하지 못했던 나눔과 상호 의존적인 연대감을 통해 코하우징은 밀레니엄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마디로, 서로 간에 좋은 이웃으로 서로의 짐을 덜어주면서 하나가 돼 사회적 문제점들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밀레니엄들에게 다가서려는 교회들은 코하우징 운동에서 그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 풀리시학과 연구, "성장하는 교회들 중에서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은 교회"는 그 공통점을 짚어냈다: "교회들은 바로 교회가 자리 잡은 도시에서 되도록이면 이웃이 되려고 노력했다. 좋은 이웃이 되려는 창조적인 사역들과 헌신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중심점이었다."

결론으로,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과는 달리 덜 종교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공동체가 진정한 이웃이자 생명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로서 거듭난다면, 밀레니엄들은 분명히 그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환대와 연민이라는 어쩌면 비효율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알리는 것이 코하우징 물결을 가장 잘 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사 대우개선과 연대감, 소통강화로 개혁

(2면에서 계속)

사니 고문은 "2년 전만해도 출근도 잘 안하던 교장들이 지금은 모두 적극 나서 열심히 일하고 SNS를 통해 세세한 진척 상황까지 보고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럴까? 사니 고문은 그들 스스로 가지 있는 일을 한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것처럼 교육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고 의욕을 북돋운 것이 라자스탄 주의 교육 환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강그와르 장관만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다. 세계 곳곳의 다른 교육 혁신가들도 그런 방식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모른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신 보고서 '수백만 명이 배운다: 개도국의 고품질 교육 운동(Millions Learning: Scaling Up Quality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에는 라자스탄 주 교육 관계자들의 학습 장려 운동이 개도국 전체로 널리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라자스탄 주의 교육 개혁 성공은 교사들을 지원하고 연대감을 강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주요 원칙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잘 보여준다. 그곳의 교육 관계자들은 강그와르 장관이 최대한 오래 그 직책을 유지하기 바란다.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로 교육에도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라자스탄 주에선 공립학교 10학년의 학력고사 합격률이 14% 높아졌다. 영국 전체만큼 공립학교 학생이 많은 라자스탄 주에선 대단한 성취다. 강그와르 장관의 노력은 공립학교 개혁이 학생

의 학력 개선과 평등성 제고에 핵심적인 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0년 전부터 효과적인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비정부기구 보드의 책임자 요겐드라는 "우리 지난 25년 동안 지방정부와 손잡고 교육 개선에 힘썼다"고 말했다. 강그와르 장관은 보드를 포함해 인도의 왕성한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요겐드라는 "지난 2년 동안의 개혁 실적이 그 이전의 모든 해를 합친 성과보다 더 컸다"고 말했다.

라자스탄 주의 지도자인 람 찬드라 초우드리는 학교 통합으로 임명된 새 교장을 칭찬하며 "보석 전문가만이 보석을 알아본다"고 말했다. "마침내 우리 학교에도 보석 전문가가 생겼다. 우리 구역엔 보석이 많다. 학교가 계속 좋아지면 앞으로 우리 수많은 보석을 캘 수 있을 것이다."



(라스베가스연합감리교회)

나은진 목사의

바이블 시사칼럼

###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나세요'

박대통령님, 당신은 이제라도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만이 당신의 힘이 되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며,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묻지도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솔직히 40여 년 전 최태민이 아닌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야말로 당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당시 혹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면, 솔로몬 왕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통령으로서의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지혜인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영동하게도 어느 한 사람에게 속아 그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그 잘못된 인연이 오늘날까지 이어오므로 인해 당신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외롭고 힘이 부쳤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두 아들에게 그리고 가까이했던 신하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합니다. 이럴 때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듯 괴로워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시편 22편 1, 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6-8절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할 실결,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비관하듯 말합니다.

대통령 당신은 다윗 왕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하고 있는 현실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은 이러한 상황아래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간절히 요청함으로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6, 7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

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당신은, 이러한 나라의 상황아래 밤에 촛불을 켜고 외치는 국민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말하고 원하는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외침에 당신은 크게 당황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향한 음성에 귀를 더욱 바짝 기울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셨을 때, 거기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그를 왕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저들의 외침이 자신의 뜻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에 올라타고 입성하실 때, 도시전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떠들썩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담대하셨으며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을 옮기셨음을 봅니다. 그런데 저들 군중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며, 예수님께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갯세마네 등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잠들어 자는 가운데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마26:39).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외침이 쾅쾅 때리며,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뒤돌아서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대통령 당신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더 이상 배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문제, 아니 국가적으로 시끄러워진 이 문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구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당신에게 외치는 그 소리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옛 사람이 죽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죄 값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백세시대에 있어 조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직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자신과 집안의 명예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  
(로마한인교회)



## 최초의 남장여자 교황 조안 (Jovanna Papissa, 855-857) -여자라는 이유로-

인생은 결국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죽는다. 그 길은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말이다.

나는 지금 오랜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있는 길인 콜로세움에서 라테란 성당에 이르는 그 좁은 길에서 있다. 이 길을 옛날에는 거룩한 길(Via Sacra)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지금은 Via di San giovanni in Laterano 라는 수수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

신의 기본에 내키는 대로 가만히 있는 길에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한다. 이 길은 콜로세움에서 라테란 성당까지의 거리가 약 500-600미터 정도 된다. 이 길 한편에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 클레멘트 교회가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다.

90년경에 로마의 감독으로 클레멘트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의 감독 클레멘트(동명이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그 편지에 베드로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하였음을 개혁자들이 인정하게 되었다. 그 클레멘트가 이곳에서 목회했을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런데 이 자리는 색다른 사건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이 역사적 사실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당시 교황청 사서로 일했던 아나스타시우스다. 이곳은 최초 남장여자 교황 조안이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레오 4세를 이어 영국인 조안이 2년7개월을 교황직을 수행하던 중 남장여자는 사실이 발각되어 성난 시민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녀의 연인은 그를 남장을 하여 그리스로 데려갔고, 탁월한 그녀는 거처서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인문학을 가르쳤고 많은 추종자들을 두게 되었다. 그는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교황청의 비서를 거쳐 추기경이 되었다. 그 후 만장일치로 교황에 선출될 수 있었다.

그녀는 교황으로서 부활절의 큰 행사를 주관해야 했다. 그 행사는 예식을 마치고 베드로 성당에서 출발하여 콜로세움을 거쳐 라테란 성당으로 가는 순례를 하는 행

사였다. 그 화려한 행렬에는 많은 추기경과 주교들, 수도원장 및 신부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단한 퍼레이드이었다. 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거룩한 행렬을 구경하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은 교황을 향해 손을 흔들고 교황은 그들을 향해 강복의 성호를 긋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교황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온 출산을 위한 진통이었다. 조안 교황은 출산 일지를 몰랐거나 잘못 집었던 것이다. 달을 채운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는 데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차릴 계재가 아니었다. 산모에게 그 순간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교황이라는 권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말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남장여자 교황이 아기를 안고 있는 형상이 이 길가에 15세기까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1510년경에 말린 루터는 로마를 방문했는데 이런 석상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세워둔 것에 크게 놀랐다고

했다. 또한 석상은 교황의 망토를 입고 아기와 홀을 들고 있는 조안 교황의 형상이었다고 한다. 그 후 교황 식스토 4세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에 대해 1414-15년 종교회의가 콘스탄츠에서 열렸는데 개혁자 안 후스는 조안 교황을 예로 들어 교황청을 통렬하게 비난하였으나 당시 참석했던 종교 지도자들 중 누구한 사람 반박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이었던 때문에...

이런 경험을 겪게 된 교황청은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특이한 의자를 만들게 했는데, 그는 조안 교황의 후임자 베네딕트 3세였다. 그가 고안한 의자는 바닥에 커다란 구멍을 뚫은 이상한 의자였다. 교황으로 선출될 사람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교황 선출 시에 선정된 사람이 이 의자에 앉아 성별을 먼저 검증 받아야 했다. 이 의자에 앉으면 하위 성직자 중 한사람이 의자 밑으로 손을 넣어 남자의 고환을 만져본 후에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한다. "그에게 고환이 달려있습니다" 그

리면 모든 성직자들이 주어, 찬미 받으소서라고 화답하고 교황선출을 기쁨으로 진행했다.

나는 이 의자를 보기 위해 라테란 성당으로 찾아갔다. 사전을 찾아보니 진품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볼란서의 루볼 박물관, 그리고 또 하나는 바티칸 박물관, 즉 gabinetto delle maschere 방에, 그리고 또 하나가 라테란 성당 정원(Chiostrero)에 있다. 그 의자 이름을 La sedia Stercoradia 라고 한다. 그 의자는 화려한 돌로 되어 있었다. 의자 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구멍 부분이 깨어져나갔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나무의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무 의자는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말이다.

조안 교황! 하필 그 장엄한 축제의 퍼레이드에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역사는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기록하였을지도 모르는데... 여자라는 이름, 그 이름은 역사와 더불어 수많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서러운 이름인지 모른다 는 생각이 든다.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컨즈장로교회 원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40년 광야생활에서 되어진 일을 말하고 있다. 스테판은 행7:38에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을 광야교회라고 했다. 60만 광야교회, 여기에 모세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들을 천국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자기의 혼신을 다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를 받아 애굽을 떠났다.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사막길에서 배불리 먹고 마셨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다가 멸망 받았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도 바울을 원망하는 것을 강력히 권면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이런 일이 바로 우리 고린도교회에 거울로 주시며 교훈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본문 고전10:6에 "그러나 우리는 거울이 되어"라고 하였고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라고 하였다. "거울은 우리의 잘못을 시정하고 내 모습을 바로

비취보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다. 이 거울 들여다보면 자기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 자기의 일그러진 모습, 더러워진 모습을 보고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있어서도 거울이 필요하다.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잡아 줄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일을 거울로 삼아 같은 오스 전철을 밟지 말라고 주신 경계의 말씀이다.

1. 광야교회의 실상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광야교회의 실상, 즉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에 광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출13:21-2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출14:21-22),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출16:12-18),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출16:12-18),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

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하였습니까.

이 네 절의 말씀 중에 '다'라는 말씀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광야교회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루 받아 누렸습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였습니까? 그럼에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2. 광야교회의 허상

본문 5절에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저희가 악을 즐겨했다는 말씀은 악한 일에 마음이 쏠리고 악한 일에 단 마음을 가지고 좋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친 그들의 죄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7절).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본문 7절은 출애굽기 32: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심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3천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고전10:14절에도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모두 우상인 것입니다.

둘째, 간음의 죄입니다(8절).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9절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 말아야 합니다. 될 것을 안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주의 사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10절).

원망은 원어에 보면 '수군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습니까(민12:8).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의 종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곧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향한 원망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원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 우리를 향한 경계의 거울

본문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란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에서 행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 사건을 지적하며 그런 사건들이 교회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울을 삼아서 현재 말세를 만

난 우리의 경계를 말씀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 광야교회의 사건이나 교회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단일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은 자기는 넘어지지 않았으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허대전(John Hunt)선교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자기 생활의 과거와 현재의 것을, 모든 은밀한 죄악이나 입이나 행동으로 또는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촬영하여 영화화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공개한다면 우리 중에 그것을 허락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과거대로 그냥 지속한다면 모두 광야교회의 백성들과 같이 멸망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보고 고도 씻을 줄 모르면 영적인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는 항상 현재에 사는 우리를 교훈하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활을 깊이 통찰하십시오. 그리고 적나라하게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특히 나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취봅시다. 그리고 씻고, 뉘고, 회개하고 바로 잡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1-12).

nychpress@gmail.com

# 말세 교회의 거울

(고린도전서 10장 1-12절)

# 선교 기고문

## 미얀마 선교여행을 마치고



황문규 목사

저는 21년 전에 목회를 65세로 정년 은퇴하고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가르치면서 미주선교회 회장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와 강의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미얀마(버마)의 양곤국립대학에서 강의 초청을 받고 미얀마에 가서 먼저 저드슨 국제 신학대학원에서 하루 강의를 하고 그 다음 2일 동안 양곤국립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개봉교회와 대광고

등학교에서 설교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돌아와 안식년 동안 공부하는 선교사들에게 선교사훈련원(Global Missionary Training Center in Seoul)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양곤에서 첫날 저드슨 국제 신학대학원에서 아시아 각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성공적 다문화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강의함으로써 시간 절약은 물론,

학생들의 좋은 집중력으로 강의가 더욱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2일은 양곤국립대학교에서 "국제적 지도자"(The International Leadership)란 제목으로 강의하였는데 학생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교수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것은 그 교수들이 전부 불교신자였습니다.

미얀마는 인구 90%가 불교신자인 불교국가이며 1948년에 영국인민지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후

1962년부터 오랜 동안 군사정권에 의해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최근에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아웅산수치(71) 여사가 사실상 실권을 잡으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방국가들에게 개방정책을 시작하면서 교육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학하면, 양곤국립대학교총장을 비롯해서, 주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유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 중 그 교수들은 미국의 교육제도와 어떻게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까.

또한 교수들은 미국이 어떻게 강대한 국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적인 생의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간증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나는 16살 때 북한에서 혼자 월남하여 남한에서 피난민 고학생으로 있을 때 6.25사변이 났는데, 전쟁 중 하나님께서 저를 미 해병대 통역으로 인도하시고 일선에서 만난 친절한 미군의 어머니가 나를 도와서 1954년 미국에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포켓에 1달러가 남았습니다. 그 1달러를 가지고 대학과 신학교를 다 마치고 미국교회와 후에 한국인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남미에서 선교사역을 하였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교수 중 한사람은 그 대학 도서관에 비치된 나의 저서, "Power of Dream, Love, Mission"을 읽고 질문하기를, "어떻게 되어 한국교회

대신 미국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한인 대신 미국인과 결혼했느냐"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1960년 당시에는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대답하며 나와 교제하던 미국 여학생과 결혼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부모가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만일 꼭 결혼한다면 대학을 마치고 하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 5월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의 아내는 6월 2일에 대학을 졸업하고(약속한 대로) 그 다음날 3일에 결혼했다고 말할 때 모든 교수들이 다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불교신자인 교수들에게 하는 강의의 강의를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트럼프 당선 후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소식들

백악관에 있던 반기독교적인 "전문로비스트들"을 제거하다

지난주 1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마이크 펜스부통령을 새 대통령 인수위원회(transition) 총책임자로 뽑는 좋은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좋은 결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 펜스는 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인디애나의 주지사로서 오바마 정부의 반기독교 정책들로 인해 크리스천들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 늘어날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 주정부 법안을 만들어 시민들을 보호한 사람이며, 부통령으로 당선되어 첫 대중인사를 할 때도 자신의 소개를 "나는 크리스천이며, 보수파이고 공화당이다"라고 소개했으며, 11월 7일 저녁에는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저녁은 펜스가정에서 하듯이 여러분도

75주년 '국가 성경의 주' 기념으로 하원의원들이 성경구절을 나누다

지난주 11월 13-19일에 75주년 '국가 성경의 주' 기념으로 여러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누는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시간 공화당 하원의원인 Tim Walberg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를 읽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후원한 콜로라도 공화당 하원의원인 Doug Lamborn은 미국이 전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의했는지 나누며,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Betsy DeVos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당선 팀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Betsy DeVos는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동안 오바마 정부로 인해 친동성애, 친이슬람, 문란한 성교육과 반기독교화 되어졌던 공립 교육시스템들을 하나씩 다시 잘 고쳐나갈 수 있는 여성이기에 감사한 일이며 Betsy DeVos가 진보주의자들의 험악한 공격을 당할 때도 굳건히 그녀의 신념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꼭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Betsy DeVos의 주요 교육정책들 몇 가지

1) 그동안 너무 문제가 많았던(친동성애, 친이슬람, 아이들 나이에 부

3) 저소득층 가족들도 자신들이 선택하는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vouchers)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추진한다.

모든 아이는 가정의 소득과 상관 없이 "최고 수준의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0년에 그녀는 이미 전국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4) 차터 학교와 홈스쿨링을 지원한다.

그녀는 홈스쿨링은 좋은 교육 옵션이라고 믿으며 학부모가 학교의 공립학교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참견이나 통제 없이 학부모가 가정에서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되돌려 주고 미정부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매년 미 정부가 1명의 학생을 위해 제공하는 정부교육자금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번 대선에 꼭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미국 기독교인들의 신뢰를 받는 리더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인수위원회 총책임자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오바마 정부에 의해 백악관 팀에 고용되어 있었던 모든 "전문로비스트"들을 공식적인 역할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전문 로비스트들은 주로 동성애 운동단체, 낙태단체, 이슬람단체, 또는 사회주의/공산당가치관을 동경하는 특정 압력단체들의 대표자들로서 이런 로비스트들은 자기 단체의 이익을 쟁기기 위해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입안자나 정당위원을 상대로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CBS와 보수언론들은 마이크 펜스가 로비스트들을 제거한 것은 워싱턴에서 "drain the swamp/고질적으로 나쁜 정치적 관행을 철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 말씀에 대해 '이 위대한 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조지아 공화당 하원 의원 Jody Hice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해줍니다"라고 했고, 성경 읽는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국립성경협회 회장인 Richard Glickstein은 말하기를 "아마 3분의 1 정도의 미국인만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구소련 기독교인은 성경이 없었다. 숲에서 또는 비밀 모임에서만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성경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 이벤트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게는 국가 성경의 주가 단순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8년간 미국 안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며, 성경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만이 미국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전국에 알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담은 행사라고도 할 수 있기에 너무 소중한 행사였습니다.

적합한 문란한 성교육, 반기독교적 내용을 담은) 공립학교 의무교육인 커먼코어(Common Core STD)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녀가 커먼코어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온 태도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교육부장관으로 선택된 후 그녀는 커먼코어에 대한 그녀의 위치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높은 교육 표준과 강한 책임감, 그리고 학교/학부모의 협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커먼코어와 관련 있는 조직과 일했었고, 커먼코어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너무 잘 알기에 더 더욱이 커먼코어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2) 학부모들에게 다시 자녀들의 교육양육권을 돌려준다.

그동안은 오바마 정부에 의해 학부모들의 자녀양육권이 정부에게 점점 박탈당해지고 있었는데, DeVos 자녀양육은 학부모들의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특별히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갈 학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 프로그램 (voucher)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시민들의 세금이죠) 1만 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은 공립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만일 DeVos가 지원하는 교육 지원금 프로그램이 전국에 적용되면 1만 불의 정부교육자금을 공립학교 대신 기독교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 의해 점점 상실해가던 자녀교육의 권리를 학부모와 학교에 돌려주겠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며, 그동안 깨어있는 크리스천학부모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DeVos를 위해, 지금 새롭게 들어온 정부를 위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8년간 쌓아놓은 오바마 정부의 전력을 지키기 위한 진보주의자들의 공격이 상상할 정도로 강합니다. DeVos와 새로운 정부의 국가의 리더들이 신앙과 소명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도록 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옛날 사도시대 때에는 치유의 권능이 놀라게 나타났는데 오늘날도 신유의 역사가 있는지요. 병든 자를 위해 믿고 신유기도를 해야 하는지요? 이 신유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김 전도사

A: B. B. Warfield나 몇 신학자들은 신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일시적인 은사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했던 은사로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끝났다(ceased)고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많은 개혁주의 목사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 방언의 은사나 은사를 부인하는데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개인의 주장이지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 은사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온전한 것이 오는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방언이나 예언이 폐하는데 그 때는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은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사도들처럼 강하게 신

### 신유의 역사는 오늘날에도...은사나 기도응답으로 나타나

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유는 존재합니다. 한국의 성결교회는 4종복음을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 중에 신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유(Divine healing)를 보면 "이는 신자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7-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며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병자에게 인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신유를 믿는다. 그러나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는 LA 다운타운에서 아주사 성령운동으로 팔미암아 생겨진 교단이 있는데 그것이 포스케아 교단입니다. 포스케아 교단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The Foursquare Church believes that Jesus Christ is the Savior, Baptizer with the Holy Spirit, Healer, and Soon-Coming King. We stand firm on the foundation set by Hebrews 13:8, which proclaims: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치유자, 곧 오실 재림 주, 왕으로 신앙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인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개인기도 시에 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명이며 우리교인들의 80%이상 방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목회 35년의 경험 가운데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치유의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 낫는 것은 2가지로 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병이 낫거나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치유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목회하다가 병든 자가 기도를 요청하면 병 낫기를 위해 목회자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6).

# 사역자 청빙

함께 동역하실 신실하신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구분: 파트 혹은 풀타임 사역자
- 부서: 교육부와 교구 (영유아부 / 중등부 / 주중학교 / 교구 )
- 자격: 정규 신학교 졸업 전도사 목사
- 이력서 보낼 곳: jhotee@hotmail.com  
전화: 281-752-0700 Ext.2
- 저희 교회에 대한 정보는 www.kcpch.org

##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                 |       |            |       |
|-------------|-----------------|-------|------------|-------|
| ★ 1년<br>구독료 | 미국 .....        | \$100 | 유럽 .....   | \$190 |
|             | 캐나다 .....       | \$110 | 남미 .....   | \$190 |
|             | 한국및 동남아시아 ..... | \$190 | 아프리카 ..... | \$190 |

|  |   |                              |  |
|--|---|------------------------------|--|
| 신청 유형  |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br><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                              |  |
|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 한글 :  | 목사 <input type="checkbox"/>  |  |
|  | 영어 :  |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  |
| 배달 주소  |   |                              |  |
| 전화/Fax   | ( )   | (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받는분 이름   | 한글  | 영어                           |  |
| 전화번호/Fax   | ( )   | ( )                          |  |
| 배달 주소  |   |                              |  |
| 교회/기관명   |   |                              |  |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종교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힌디(HINDI)



‘힌디’는 본래 힌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리키는 용어다. 힌디어는 인도 북부지역, 특히 갠지스강 지역과 Uttar Pradesh, Bihar, Madhya Pradesh 그리고 Pajasthan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힌디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공통언어(힌디어)와 힌두교에 의해 하나로 통합된 민족과 사회 집단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다. 힌디어는 인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Khari Boli 방언에서 파생된 인도-아리아어족의 언어 중 하나다. 힌디어의 많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빌려왔으며 Devanagari 서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힌디어 사용자들은 Chaltu 방언 또는 Baghelkhandi 방언을 말한다. 힌디어족 언어 사용자들은 수천년 동안 인도에 거주해오고 있다. 많은 힌디어 사용자들은 BC 1500년경 북부 인도 지역을 정복한 아리아인의 후예들이다. 힌두인들은 1700년대까지는 인도 무굴제국에 의해, 그 후로 1947년까지는 대영제국에 의해 지배당했다.

힌디어는 인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Khari Boli 방언에서 파생된 인도-아리아어족의 언어 중 하나다. 힌디어의 많은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빌려왔으며 Devanagari 서체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힌디어 사용자들은 Chaltu 방언 또는 Baghelkhandi 방언을 말한다. 힌디어족 언어 사용자들은 수천년 동안 인도에 거주해오고 있다. 많은 힌디어 사용자들은 BC 1500년경 북부 인도 지역을 정복한 아리아인의 후예들이다. 힌두인들은 1700년대까지는 인도 무굴제국에 의해, 그 후로 1947년까지는 대영제국에 의해 지배당했다.

삶의 모습

힌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본원지인 갠지스강 유역의 비옥한 평야로부터 델리의 도시 중심지까지 모든 사회계층에 널리 퍼져있다. 그들 중에는 성직자들도 있는 반면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힌디어인은 카스트에 의해 무수한 사회계층으로 분류된다. 가장 큰 집단을 이루는 힌두인들은 4개의 주요 신분계층으로 분류된다. 세습되는 이 4개의 계층은 브라만(성직자와 학자), 크샤트리아(통치자와 군인), 바이샤(상인과 직업인), 수드라(육체노동자와 노예)의 서열을 이룬다. 이 4계층은 수없이 많은 하위계층으로 더욱 세분된다. 일반적으로 상위계층의 구성원들은 하위계층으로부터 자신들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날 힌디어인들은 점점 더 서구화되어가고 있다. 그들의 종교는 그렇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힌디어인들이 포도주를 마시며 대부분의 육류를 섭취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힌디 여성에게는 이혼할 권리와도 있으며 남편과의 사별이후에는 재혼할 권리와도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많은 힌디어인들은 서양의복을 입는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여전히 도티(dhoti, 다리사이에 두르거나 치마처럼 헐렁하게 입는 수수한 겹옷)를 입는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특별한 공식행사 때 사리(sari, 드레스처럼 몸을 둘러싸 걸쳐 입는 플라워-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짐-가 없는 겹옷)를 입기도 한다. 부유한 힌디어인들이 호화로운 아파트 저택에서 사는 반면 가난한 힌디어인들은 진흙 오두막에서 산다. 농부들은 습지에서 옥수수, 기장(수수), 렌즈콩 등을 재배하며 산다. 밀, 쌀 그리고 감자는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힌디어인의 주식인 '멀리거토니(mulligatunni)'는 물에 끓인 고추와 익힌 쌀, 튀긴 양파를 섞어 만든 스프다. 그들은 멀리거토니를 뜨거운 카레소스와 함께 먹는다. 일 반적으로 지방민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오른손으로 식사를 한다.

뒤 이후, 영혼은 마침내 완전한 경지에 이르러 죽음과 부활의 순환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믿는다. 다른 많은 힌두교도들처럼 힌디어인들은 갠지스강에 몸을 씻기 위해 의례적인 순례를 떠난다. 그들은 신성한 물이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해준다고 믿는다.

신앙

힌디어인의 95%가 수많은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힌두교도다. 힌두교는 육체가 죽을 때 곧바로 영혼은 새로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 그의 영혼은 더 높은 지위의 신분계층으로, 어쩌면 브라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악한 삶을 살면 그의 영혼은 더 낮은 지위의 신분계층, 어쩌면 짐승이나 곤충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셀 수 없이 많은 삶이 되풀이

필요로 하는 것들

성경과 영화 '예수가 힌디어로 번역돼 그들에게 유용하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무수한 거짓 신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한다. 현재 6개의 선교단체들이 힌디어인들 가운데 사역중이며 그들의 사역은 다소 진전을 보이고 있다. 46만명 이상의 힌디어를 말하는 신자들이 있지만 그 수치는 힌디어 사용자 전체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편견·차별에 맞선 다이빙계 '작은 거인' 새미 리 별세

1981년 초 미국 수영잡지 스워드필드에 '백인의 독무대였던 다이빙에서 백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색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내용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다. 지난 2일 향년 96세로 타계한 한국계 미국 다이빙 영웅 새미 리에 관한 글이었다.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157cm의 단신이지만 미국 올림픽 역사는 물론 세계 다이빙사에 한 획을 그은 '거인'이다.

그는 28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던 1948년 런던올림픽 남자 다이빙 10m 플랫폼에서 우승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4년 뒤에는 헬싱키올림픽에서도 같은 종목 우승을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다이빙 2연패를 이룬 남자 선수가 됐다.

당시 백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다이빙에서 인종차별과 편견을 딛고 이룬 업적이라 의미가 더 컸다. 그는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에는 수영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수영장 출입이 허락된 뒤에는 그가 훈련하고 나면 수영장에 물을 새로 받았을 정도로 당시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은 심했다.

그를 때때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한결같이 말했다. "선조들의 인종적 배경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훌륭한 미국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인종 사회인 이 미국에 아시아인의 훌륭한 자질을 심어주는 것, 그것은 너의 의무다."

그 가르침대로 한국인의 우수성을 입증하겠다는 집념과 각고의 노력으로 그는 심판들의 편파적인 판정마저 극복하고 마침내 미국에서 다이빙 제1인자로 자리매김했다.

아버지의 희망이었던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그는 1947년 미국 남가주대(USC)의 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입대해 선수생활을 이어간 뒤 이듬해 올림픽 무대 정상에까지 올랐다. 나이가 올림픽 2연패를 이뤘고, 1953년 아시아계로는 유일하게 미국내 최고 아마추어선수에게 주는 쉐리번상을 수상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1960·1964년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을 이끌었고, 1984·1988년 올림픽에서 2회 연속 2관왕에 오른 그레그 루가니스 등 세계적 스타 선수들을 길러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는 그의 이름을 딴 '새미 리 광장',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에는 '새미 리 박사 매그니트 초등학교'도 있다.

고인은 1953-1955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군의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원도 평창이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을 때 명예홍보대사를 맡아 활동했고, 수차례 방한해 후배 대표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그는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늘 잊지 않았다.

맥킨지 "이민자들이 세계 총생산 4% 증가시켜"

국제 이주가 오히려 세계 경제 총생산을 4%나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내 반(反)이민자 정서가 확산되고 유럽에서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필두로 우경화가 극심해지는 현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민자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사회 통합과 소용이 꼽혔다.



이년설타임스(FT)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글로벌 연구소 보고서에 인용해 세계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국제 이민자가 세계 경제 총생산에 9.4%인

6조7000억달러를 기여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국제 이민자는 모국에 머물렀을 때보다 3조 달러 많은 생산량을 거두고 있다. 국제 이민자는 출생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진도 선진국 성인 인구에서 이민자가 1%포인트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2%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또 고학력 이민자와 저학력 이민자 모두 GDP 순증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맥킨지 보고서는 국제 이민자 2억4700만 명 중에서 90%가 자발적으로 이주했으며 나머지 10%는 난민과 망명자라고 밝혔다. 전체 이민자의 절반가량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했다.

문제는 사회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맥킨지와 IMF 모두 이민자를 수용한 국가가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이민자로 인한 단기적인 비용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 공동 저자인 아누 마드가브카는 "이민을 둘러싼 많은 나라의 정책적인 논의가 통합 방식 자체보다는 이민자의 양적, 질적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민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대체로 내국인의 고용이나 임금 수준에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또 "이민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20-30% 수준이라며 이민자의 임금을 내국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생산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맥킨지는 이민자와 내국인의 통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민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수업을 듣도록 함으로써 독일어 실력을 기르고 학교와의 유대도 강화하도록 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정책 등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맥킨지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조너선 보웰은 "사회 통합에는 특효약(silver bullet)이 없지만 여러 방법을 조합해 함께 작동시킨다면 경제·사회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계 경제 총생산을 최대 연간 1조 달러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면부족, 미국경제에 막대한 손실

생산 인구의 수면부족이 그 나라 경제에 지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30일 발표된 '수면이 중요한 이유 : 불충분한 수면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의 수면부족이 자국 경제에 끼치는 비용은 연간 최대 4천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28%에 해당한다.

연구소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5개 나라 노동자의 수면부족과 경제적 비용을 따졌다. 일본이 최대 1천380억 달러로 뒤를 이었고, 독일(70조 3천800억 원), 영국(58조6천500억 원), 캐나다(25조1천22억 원) 순이었다.

랜드연구소는 생산 인구의 수면부족이 높은 사망률과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짐에 따라 미국 회사들이 연간 작업 일수로 120만일을 손해 본다고 평가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하루 수면 시간으로 7-9시간을 권장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성인 3명 중 1명꼴로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한다고 집계했다. CDC는 7시간미만으로 자면 소아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 심장병과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랜드연구소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수면 시간과 경제 효과를 예상했다. 첫 번째는 수면 시간 7시간미만의 모든 노동자가 권장 수면 시간인 7-9시간을 잘 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나온 수치가 앞서 제시한 최대 경제 비용이다.

두 번째는 6시간미만의 수면자가 6-7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1시간 늘릴 때, 세 번째는 6시간미만 수면자 증은 그대로 두고 6-7시간 수면자가 7-9시간으로 늘릴

때다. 이 중 경제비용이 가장 적게 산출된 시나리오는 두 번째다. 이 경우 미국의 경제비용은 2천860억 달러로 최대 예상치보다 많이 줄었다. 일본도 879억 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현재 노동자의 수면 시간을 반영한 결과로서 미국에서 6시간미만 수면 노동자는 전체의 18%, 6-7시간 수면자가 27%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4개 나라 중 6시간미만 대 수면자의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는 캐나다(6%),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일본(16%)이었다.

결국, 세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대입한 나라별 수면 시간 대비 경제비용은 2천800억-4천110억 달러(미국), 880억-1천380억 달러(일본), 393억-600억 달러(독일) 등으로 나온다.

랜드연구소는 노동자의 수면 시간 부족에 따른 경제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의 선임 저자인 랜드연구소 유럽의 마르코 하프너는 "노동자의 수면 습관이 노동자의 건강과 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 내렸다.

랜드연구소와 CDC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수면 시간을 늘릴 방법으로 침대에서 TV 시청과 태블릿 사용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고 일어날 것을 등을 제시했다.

외신들, "한국 국정마비 복안이 악용할까 우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사임 가능성을 내비치자 외신들은 불안정해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미국까지 정권 교체로 혼란스러운 점을 틈타 북한이 한국의 리더십 부재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본 외신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으로 한일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가진 이튿날인 30일 '한국 대통령의 반가운 하야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이 담긴 글이다.

블룸버그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라며 "지금 세계는 서울의 권력이 진공 상태인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미국은 대통령직 인수인계로 불안정한 상황인데다 차기 행정부의 대(對)아시아 정책 역시 혼선을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북한 입장에서 그를 시험하고 싶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청년 실업, 막대한 가계 부채 등 심각한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한국 정부도 국정 마비 상태가 버거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지나치게 시간을 끌지 않고 차분하게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한국과 세계 모두를 위해 더 좋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이 노릴 반사 이익을 경계했다. WSJ는 28일 사설을 통해 "한반도는 언제나 위험했지만 앞으로 몇 달간 특히 그럴 것"이라며 "북한이 이(박 대통령 탄핵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 들 수 있다는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한이 민주적인 논쟁에 따른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약점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WSJ는 "세계의 독재자들은 언제나 새 미국 대통령을 시험하려 했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등의) 트럼프 공약이 오해의 소지를 더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도쿄, 산케이, 니혼케이자이 등 일본 주요 일간지 6개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1면에 소화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데 힘써온 박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양국의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사히는 사임 시기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박 쇼크(朴 shock)'라고 칭했다. 특히 다음 달 19-20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에 의문을 던지면서 "(위안부)소녀상' 이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북한 변수'도 언급했다. 아사히는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지에 따라 지금의 한미일 동맹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일합의로 양국 관계를 개선했고 지난 23일에는 양국의 국방 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며 "합력과 합의의 이행 여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일합의 백지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합의 자체가 철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언론의 이런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사의 표명으로 소녀상 이전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위안부 합의나 GSOMIA는 국가간 합의사항이므로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연내 개최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북핵 위협에는 "한국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세계 인구 74억명 돌파...아동 89% 비선진국에

올해 인구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 74억명을 돌파했다. 유엔 인구 기금(UNFPA)이 1일 발표한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지난해 73억4900만명에서 1.1% 증가해 74억 3300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4세 이하가 전체의 26%를 차지했고, 15-64세가 66%, 65세 이상이 8%였다. 평균 수명은 남성이 69세, 여성은 74세였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라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10세 아동의 숫자는 1억 2500만명이다. 이 중 89%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었고, 5명 중 1명은 유엔이 정한 최빈국 48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세 여아 3500만명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만족도, 프랑스 가장 낮고 중국 가장 높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큰 나라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주요 25개국 가운데 국정에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보다 높은 곳은 7개국에 불과하다. 각국 국민 사이에 팽배한 불만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같은 포퓰리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리서치업체 입소스 모리는 25개국 성인 1만 8064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나라별로 따져보면 25개국 중 18개국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3일-10월 7일 실시된 한국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대담집 스캔들, 미국의 트럼프 당선 이슈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인식이 가장 비판적인 곳은 프랑스와 멕시코로 나타났다. 두 나라에서는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답변이 89%에 달했다. 프랑스에선 무력한 테러 대응과 높은 실업률 때문에 올랑드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이다. 올랑드는 10월 중순 불거진 대담집 설화물 결정타를 맞아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4%로 추락했다.

멕시코는 마약·범죄가 만연하고 경제가 부진하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를 멕시코로 초청했다가 실의 없이 이송만 당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부정적인 응답이 3번째로 높은 곳은 브라질(84%)이다. 브라질에선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가 경제 실정과 부패 스캔들로 지난 9월 탄핵됐다. 후임으로 취임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역시 부패에 연루돼 있다.

부정적인 응답이 3번째로 높은 곳은 브라질(84%)이다. 브라질에선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가 경제 실정과 부패 스캔들로 지난 9월 탄핵됐다. 후임으로 취임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역시 부패에 연루돼 있다.



#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한인 데이 스쿨



수원 삼일학교 제2교사

### 16. 이지성

이지성은 1880년경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한하기 5년 전 태어났다. 그는 한국 수원에서 미국 북감리교가 설립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는 외세가 밀려오고 안으로는 신분적 유교체계가 동요하는 등 사회 전반이 균열 현상이 발생하던 때인 20세기 초 이지성은 하와이 사랑수수 농장으로 이주한다.

한문, 영어 중국어 등을 가르쳤고, 국사 과목의 경우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등의 위인과 영웅의 전기를 통해 애국 사상을 고취하였다.

1906년 한인기독교학교 학생들 중 몇은 법정이나 농장에서 통역을 담당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한인기독교학교는 1907년에는 정규학교로 승격하여 다른 삼일학교로 진학이 가능했다. 1913년에 이승만이 교장이 되었을 때 학생 수는

에 공립소학교와 야학교도 설치했다. 각 농장마다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일신여학교 등 4개 공립소학교가 있었다. 야학교는 영어와 국한문, 산수 등을 가르쳤고, 10개 처에 흩어져 있었다. 이 야학교의 교장에 이지성이 임명되었다. 이지성의 임명은 야학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음을 암시한다. 이외에도 골로아 지방 국어학교 등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학교가 힐로, 브네네, 마카웰리, 엘리엘리, 예바, 하나마울루, 와하와 등 7개 처에 설립되면서 한인 2

한 복음회 Gospel Society의 책임자로 활동했다. 이듬 해 이지성은 위의 본 연회 산하 한인기독교학교 사감 외에도 서적 판매인으로 임명받았는데 1908년에도 서적 판매인으로 활동했다.

1908년에는 이지성이 민찬호, 임정수, 메이미 와드만 부인 등과 함께 한인기독교학교 교사로도 임명을 받았다.

수원

1909년 하와이 연회는 이지성을

받았다. 경성, 평양, 선천, 의주, 공주, 사리원, 인천, 수원, 대구 등 각 처에서 사역하던 목사 수십 명이 일본 시찰 신청을 하였는데 이때 이지성도 함께 했다. 당시 미미미회(감리교회) 소속 목사로는 장낙도, 손승중, 최병현, 신흥우, 이경직, 현 순, 김덕기, 현석철이 동행했고, 장로교 소속 목사로는 김창근, 양전백, 주공삼, 이원민, 김천일, 한석진이 동행했고, 한국인기독교청년회에서는 김 립, 이상재, 최상호, 수원 삼일학교 제2교사, 1937년 김일선, 이원공이 함께 했다. 신

으로 보고되었다. 이지성은 1912년 3월, 조선 연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그는 일본에서 약 2년간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울로 돌아온 1914년, 이지성은 서울 감리교 신학교의 4년차에 재직하면서, 내한 감리교 선교사 W.A. 노블 목사의 서울 지방회 산하 한강과 이태원 지역의 목회자로 활동했다. 그런데 그가 1915년에는 장로 목사로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그 해 목회자로도 임명을 받지 않았다.

이지성은 1919년 기미년 삼일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이지성은 수원 삼일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서울 감리교 신학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가르치는 교수를 역임했다. 1924년에는 이지성이 철산에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없음을 한탄한 나머지 명진 학원 내에 기독교청년회 야학을 개교하고 조선어, 한문, 산수, 일어 등을 가르쳤다. 본 야학에는 이지성 외에도 김석윤, 우상기, 김기봉, 허원준이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에는 이지성이 조선 고아구제회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 해 11월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고문에 윤치호, 민영찬 그리고 내한 미국 선교사 도마위 등 3명을 추대하였고 이사장에 위익상을 선출하였고, 이지성의 이수유, 김영길, 강봉재, 손예래, 박희도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해방 후

1948년 4월 1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지성은 서울 서대문구 국회의원 임후보에 등록하는데 임후보자 6명 중 한 명으로 68세의 회 사원으로 무소속 출마였다. 그 후 그는 한국무역합자회사 대표로 활동했고, 민생문제 해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damien,sohn@gmail.com

1907년 하와이 한인기독교학교 사감 2년 사역, 야학교교감 맡아  
1909년 수원 삼일학교 교사 및 교장으로 사역하며 감신 수학  
1912년 도미, 독립운동 참여...일본선교사로 2년 사역후 귀국



호향한인화원

한인기독교학교 사감 및 교사

1905년 5월 박윤섭과 송헌주 등이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 감리사 존 와드만의 사택에 모여 2천 달러를 약정하면서 한인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한인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상황 주재 감리교 감독 존 해밀튼은 1만8천 달러 호놀룰루에 위치한 일본인 기숙사 학교였던 북태평양학교 건물을 구입했다. 한인 약정금 2천 달러 이외는 서양 친지에게서 1천 달러, 하와이 전도회에서 5천 달러, 감리교 국내선교부와 교회확장부에서 1만 달러로 충당했다. 1906년 가을학기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학교라고도 불린 한인기독교학교 문을 연다. 한인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입사시켜 전인 민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본 기숙사는 호놀룰루 한인교회가 헌금하여 마련하였다. 이 때 이지성은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 파송으로 한인기독교학교 사감이 된다. 그는 1907년에도 사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2년간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한인기독교학교는 초, 중등 과정을 개설하였고 첫 학기에 호놀룰루와 하와이 각 지역에서 온 65명 학생이 8학년까지 등록했다. 감리사와 와드만의 부인 메이 H. 와드만이 교장이었고 미국인 교사 3명과 한인 민찬호와 임정수 등 2명이 합류하여 총 5명의 교사가 있었다. 3년제 학교로 국어, 국사, 지리, 성경, 유년필독, 수신, 초등소학독본, 산술,

120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본 학교는 한인중앙학원으로 변신한다. 다른 곳에서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던 한인교회도 이곳으로 이사한 이후 이곳은 코리안 컴파운드로 불렸다.

야학교

한인기독교학교를 설립함과 동시

세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국어학교에도 이지성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

복음회와 서적 판매인 그리고 교사

이지성은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가 1906년 호놀룰루에서 조직

수원종로감리교회로 임명했다. 비록 수원종로감리교회를 임명을 받았지만 그는 미국 북감리교가 수원에 개교한 삼일학교에서 교사 및 교장으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1903년 5월에 이하영, 임면수, 나중석 등이 수원 보시동 감리교회에서 개교한 삼일학교는 삼일공업고등학교와 삼일상업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신학부 졸업

감리교회 신학부 제1회 졸업식이 1911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서울 정동제일예배당에서 있었는데 이지성이 40명과 함께 졸업하였다. 5년 전에 하와이에서 전도하던 현 순과 이경직과 함께 이지성이 함께 졸업식에 참여했다고 소개한 신문은 그가 신학필업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감리교회 신학부 졸업식이 있던 1911년 경성에 소재한 일본인 기독교청년회가 한국 청년회 각 임원과 목사 등을 일본 시찰차 신청을

한민보는 이들을 고명환(?) 목사로서 지칭하면서 이들이 황국 감사하였다고 비꼬았다.

상향

이지성은 1912년에 다시 도미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민보에 따르면 1912년 3월, 이지성은 국민회 상향지방회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지성 이외에도 김윤철, 김능환, 이우중, 최 광, 박양호, 최 열, 김봉주, 서 조, 이상은, 이원익이 함께 가입하였다. 이지성은 국민회 상향지방회를 통하여 해외에서 추진하는 조국의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선교사

그런데 1년 정도 미국에 체류한 이지성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는 1912년 3월에 미국 북감리교 조선연회에서 집사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 이 해 연회록은 그가 서울 감리교 신학교의 3년 차에 재직하는 것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c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성경도 신앙 (19) 청교도들의 예배 (10)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 제일교회)

### 9)청교도의 예배원리

청교도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이 명한대로 믿고 예배하고자 하였으며 청교도들은 성경만을 예배의 모범으로 삼고 성경적 예배를 주장하면서 인위적인 예배를 배척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는 아래와 같다.

가)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신 12:32, 마15:9, 행17:24-25, 출 20:4-6).

에임스(Ames)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통이나 고안을 통해 예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나 불신앙으로 간주하실 뿐만 아니라 싫어하신다”고 하였고, 캣튼(John Cotton)은 “성경은 내적이거나 외적이며, 도덕적이거나 의식적인 모든 예배의 직접적이고 유일하며 충직한 법칙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입증되며, 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일반적인 신앙고백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하였다. 그는 “이처럼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으므로, 만일 인간이 만든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나)십계명이 인위적인 예배를 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였다(출 20:4). 이런 해석의 원리를 따르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분 자신이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고상, 또는 사단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전적 예배 대상 앞에, 혹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Westminster Confession 21장 2절).

존 캣튼(Cotton)도 인간이 고안한 예배는 “참된 경건을 가르치거나 고

양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하여 미신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육체적이고, 맹목적이고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되거나 명하지 않은 인간이 고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켜주며,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게 하는(민15:39) 자의적인 예배에 불과하다”고 하였다(Cotton).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새로운 예배를 고안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다)신앙의 문제에서 전통이나 인간의 고안에 의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하여 죄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인간의 판단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교도들은 인간을 원죄 덩어리로 간주하였

세상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는 전제하에,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혹은 세상의 관심을 끌면서 적절하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배를 고안하고, 임상 실험을 통해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동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행동 규범이 되는 성경이 금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연극을 개발하고 무용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적인 예배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예배를 세우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 5. 성경적인 예배 모범 지침서 요약

1)성경읽기  
성경읽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결

## 성경만이 예배의 모범...인위적 예배, 전통이나 인간 고안 의존은 합당하지 않아 목사는 성경과 신학지식 잘 알아야...늘 기도하고 먼저 자신에게 적용 입증해야

다. 원죄는 “사람의 모든 기능과 경향에 악하게 심겨진 무질서”인데, 이러한 원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간은 스스로 선을 택하거나 회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과 전통에 호소하면서 인위적인 예배를 고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교도의 성경중심적인 예배 사상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자연의 빛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만물의 주이시며 최고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 선하게 대하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 사단의 암시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나, 성경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방법으로 예배할 수 없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1절).

칼빈과 청교도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새로운 예배의 개발을 주장하는 이들은 시대가 변했고

하게 되고 그분의 백성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목사나 교사들이 해야 한다. 그리고 외경은 단 하나도 허용될 수 없고,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읽되 가장 잘 번역된 모국어로 읽어야 하며, 무지한 자나 배운 자 모두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읽을 것인가는 목사의 판단에 맡겼다. 그러나 대체로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씩 읽었다.

2)공기도  
공기도는 말씀을 읽고 시편 찬송을 부른 후에, 설교를 담당할 목사가 청중들에게 말씀의 효력을 발하여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갈급해하는 심령을 가지도록 간구했으며, 또한 말씀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했다.

3)설교  
가)설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속한 것으로서, 이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일을 감당할 목사는 말씀 선포의 은사를 받은 자여야 하며, 원어 성경을 잘 알고 신성한 것을 다루는데 필요한 교양과 학문을 익힌 자이어야 한다. 또 신학적인 지식을 잘 습득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훈육의 효과를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진리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

나)강론한 본문에서 교리적인 교훈들을 전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이어야 하며, 본문에 함축된 진리이어야 한다.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청중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되, 청중들을 훈육하기 위해 잘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목사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백한 말로 설명해야 한다.

다)성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듯, 청중은 준비된 마음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공예배로 모임 때 회중은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게으름이나 사적 모임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아서는 안된다. 경건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지 말며, 담대하고도 겸손한 태도로 나와야 한다. 특정한 자리를 신성시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절해서는 안된다.

회중이 모이면, 목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도록 엄숙하게 청하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한다. 회중은 목사가 성경을 읽는 것 외에 예배 중에 어떤 것도 읽어서는 안되며, 사적인 대화나 회의 또는 인사를 해서도 안된다. 또 회중의 특정한 사람을 높이는 일도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거나 졸아서는 안되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만일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예배가 시작할 때 함께하지 못한다면 사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말고 늦게라도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younsuklee@hotmail.com

# 성품칼럼



이명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에티켓 있는 성품으로 키우세요

성품은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고 한 사람의 표현하는 감정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행동들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버릇이 되고 버릇이 자주 길들여지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바로 그 사람의 성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할 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생각이 좋은 버릇으로 길들여져서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녀들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티켓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가르칠까요?

첫째, 일반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녀야 할 에티켓을 가르치세요. 재채기할 때는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기분 나쁜 일을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들도록 트림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헐뜯을 하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예절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집에서 놀다가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운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면 자신이 사용한 방을 깨끗이 치우고 잠자리를 정리한다. 집주인을 도와줄 것들을 살펴서 도와준다. 헤어지기 전에 초대된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셋째, 웃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별떡 일어선다. 나이든 어른이 웃옷을 입는 것을 도와드린다. 웃어른이 떠날 때는 문을 열어드리고 계속 잡아드린다. 앉을 의자가 없다면 자신의 의자를 양보한다. 웃어른이 불편해하는 점을 배려한다. 차 문을 잡아드리고 필요하면 차 안까지 모셔다 드린다. 친절하게 대하고 잘 보살펴드린다. 웃어른의 얼굴모양이나 생김새, 주름살, 잘 듣지 못하는 것, 지팡이 사용 등 그 사람의 외모나 단점을 말하지 않는다.

넷째, 운동 할 때의 예절입니다. 경기를 할 때는 규칙을 지켜서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장비(기구)를 독점하지 않고 함께 사용한다. 같은 팀 선수들을 격려한다. 다른 팀에게 허풍을 치거나 날난 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해도 웃지 않는다. 다른 팀에게 야유를 보내지 않는다. 심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 팀이 지더라도 이긴 상대편 팀을 축하해 준다. 경기가 끝나는 신호가 울리면 멈춘다. 같은 팀끼리는 함께 힘을 합쳐 승부를 겨룬다.

다섯째, 전화를 사용할 때의 예절입니다. △전화걸 때의 예절: 상대편 쪽에서 전화를 받으면 우선 인사를 하고 이름을 밝힌다. 통화해도 되는지 정중히 묻는다. 분명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묻는다. 상대방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후에 자신의 수화기를 놓는다. △전화 받을 때의 예절: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빨리 가서 받는다. 전화를 걸어난 사람에게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하고 묻는다. 만약 아는 사람이면 전화 건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며 인사한다. 통화할 사람을 찾는 동안 “잠시 기다리세요”라고 정중하게 말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전화예절: 극장과 콘서트 또는 다른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을 꺼놓는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사용한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리를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신화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2017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     |         |    |            |
|-----|---------|----|------------|
| 대학부 | 신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 교 학 과 |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           |    |            |
|-----|-----------|----|------------|
| 대학원 | 목 회 학 석사  |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기독교교육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선 교 학 석사  |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 *여교역학과    | 3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7년 1월 27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7년 1월 28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7년 1월 30일(월) - 2월 1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목회서신

현대판 50가지 성경적 잠언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성경의 잠언은 주제별로 엮은 격언집입니다. 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혜' 즉 '슬기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1-29장), 아굴(30장), 르무엘(31장)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31장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32, 33장...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현대에도 성경적 잠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현대판 50가지 성경적 잠언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1. 기쁨으로 수용하라.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난다. 2. 힘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라. 3. 믿음의 열도를

10배로 늘려라. 100배의 수확이 보장된다.

4.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말라. 길 한 번 잘못 들면 평생 후회한다. 5.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 좋아하는 자가 되라. 6.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두고 모로 간다.

7.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8. 머리를 써라. 머리는 하늘이 나에게 준 보물창고다. 9.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자손 대대로 번영한다. 10. 복을 달라고 안달하지 말라. 복을 담은 그릇을 먼저 만들어라.

11. 항상 감사하라. 감사할 때 축복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온다.

12. 남의 잘못은 한 눈을 감아라. 잘함을 볼 때는 두 눈을 크게 떠라. 13.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14.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성전이다. 성전을 빛나게 하라. 15. 문제가 생긴 다음 기도하지 말라. 평상시부터 거를 터라. 16. 아낌없이 베풀어라.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진다. 17. 세상을 향해 축복하라. 세상도 나를 향해 축복해 준다.

18. 노노니 기도하라. 기도는 소망 성취의 열쇠다. 19. 약속은 꼭

지켜라. 사람이 못 믿는 사람, 하늘도 못 믿는다. 20. 불평을 하지 말라. 불평은 자기를 파괴하는 자살폭탄이다. 21. 원망 대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

22. 남의 잘한 일만 보고 박수를 쳐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23. 자신을 칭찬하라. 자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24. 좋은 말만 사용하라. 좋은 말은 자신을 위한 기도다.

25. 걱정, 노예가 되지 말라. 걱정 할 일이 있으면, 기뻐 할 일도 있다. 26. 하나님에게 성내도 괜찮다. 하나님은 너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으시니라. 27. 눈 감 박탈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눈 감박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

28. 하나님은 그의 본성이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네가 뭘 했거나, 안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29.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잠시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불행

한 것 같으나 행복하다. 30. 하나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보낸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가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31.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꼭 문제(시험, 고난)를 주신다. 32.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33. 하늘에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 것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방법만 버리면 된다. 35.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폭로하시는 분이시다. 36. 고난의 보자기를 뒤집어 보라. 그 속에 축복이 있다.

37. 사람이 교만하면 가르치려고 한다. 38.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선과 악도 하나가 될 수 없다. 39. 백년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0. 성령은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체험으로 안다.

41.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해답 없는 문제는 없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끝없는 고난은 없다. 42. 교만하지 말라. 애써 얻은 행운마저 한순간에 날아간다. 43.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다.

44. 웃는 얼굴에는 축복이 따르고, 화내는 얼굴에는 불운이 괴물처럼 따른다. 45. 불행 중 다행은 있어도, 다행 중 불행은 없다. 안심하고 살아가라. 46. 불행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표를 예약한 사람이고, 불행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의 변호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다.

47. 말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48.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어둠을 타박 말고 몸을 돌려 태양을 보라. 49.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50. 웃음으로 시작하고 웃음으로 마감하라. 여기가 천국이다.

jaekunlee00@hotmail.com

장영춘 회장 및 임원 전원 유임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정기총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제19회 정기총회가 2일 오전 11시 미주북음방송(사장 임택순장로)에서 열린 19대 회장에 장영춘 목사가 유임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조명환 목사 사회로 시작돼 전인철 목사(오렌지말씀사) 기도, 장영춘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회장 장영춘 목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고전1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만나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다 이는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본받으라는 것이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배제당하심을 견디시고 천국 복음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다.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자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며 사랑하셨다. 오늘 여기 모인 언론인들에게 기독언론인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맡겨주신 사명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자"고 강권했다.

이어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가 주최하고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후원으로 이뤄진 제 2회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을 갖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신약독후감 시상식과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고 우수상 송정훈 집사(뿌리 깊은 영성) △장려상 안정희 집사(하나님의 침묵), 씨니최 집사(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에게 상패와 상금, 꽃다발을 전했으며 뉴저지와 텍사스에 거주해 참석하지 못한 오경환 목사(직설/TX 달라스 영락교회), 김태길 성도(직설/NJ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에게는 우편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 심사를 맡은 백승철 목사는 "지난해보다 두 배의 응모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못한 점이다. 심사기준은 독후감 형식에 맞는 작품인가? 를 우선적으로 보았으며 진실성과 수상공모 통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학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선정했다. 이 상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상이 되길 바라고 축하한다. 또한 이 귀한

공모전의 전통이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는 총회 회무처리에서 △회장 장영춘 목사 및 임원 전원을 연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으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2017년에는 △종교개혁 학술 세미나를 비롯한 심도 있는 행사들을 준비할 것과 올해 제정된 △종교개혁관련 교독문, 공동기도문들을 각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고 진정한 개혁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제 3회 독후감 및 간증문 공모전 등을 계획했다.

언론협 연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장영춘 목사 △부회장 조명환 목사, 정요한 목사, 임승배 장로 △서기 이성자 전도사 △회계서인실 국장.

(이성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3차집회가 월서와 웨스턴에 위치한 광장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LA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 400여명 참가...보수단체도 박대통령 하야반대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야3당에 의해 지난 3일(한국 시간) 발의된 후 박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돼 서울에만 170만(경찰추산 32만)이 집결했으며 전국적으로는 232만 명이 촛불 및 햇불을 들고 박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LA에서도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한인타운 월서 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광장에서 400여명이 모여 '박근혜 탄핵, 구속'을 외쳤다.

이날 집회는 풍물패가 흥을 돋우었으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 중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인 필립 안 커디 씨도 참가했으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과 외국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웨스턴 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후 박대통령 퇴진 및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행진을 한 후 해산했다.

한편 보수단체들도 참가해 박대통령 하야반대를 위한 집회도 함께 열렸다.

한 참가자는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당장 하야를 하면 국정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최순실을 비롯한 대통령을 보좌했던 자들은 구속하되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국민된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박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자들과의 온도차가 큰 것을 느끼게 했다.

박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그룹의 한 목회자는 "오늘 침묵하면 내일의 조국과 하나님의 교회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되기에 참석하게 됐다"며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이 하 관련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음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단체에서는 또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돈을 주며 박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석하게 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집회에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준호 기자)

새 책 소개

"거기 빛이 있기에"

저자 윤일홍 목사

시인 윤일홍 목사의 시집 "거기 빛이 있기에"가 시시울에서 출판됐다.

윤일홍 목사는 "시가 나에게 온 것은 은총이다. 언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그에게 드릴 만한 말을 고르고 갖게 한다"고 말하며 "이 시집을 주님께 드린

다고는 감히 못하지만 조그만 기쁨이 되어드렸으면 한다"고 출판소감을 밝혔다.

"거기 빛이 있기에"는 서시를 비롯, 제 1부 단상이 보입니다. 제 2부 아가무야 저 별 보이니, 제 3부 앞은 왜 더 자라지 않을까 등의 주제로 나뉘어 있다.



이 시집의 모든 수익금은 윤일홍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중국선교를 위해 사용된다.

연락처:

(박준호 기자)



국제장애인선교회 "우리 서로 잡은 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국제장애인선교회 "우리 서로 잡은 손"

국제장애인선교회(회장 노기송 목사)가 주최한 "우리 서로 잡은 손" 행사가 12월 1일 오후 2시 30분 플러에 있는 유니온플라자 케어센터에서 열렸다.

노기송 목사는 "오늘 우리는 내 옆의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의 눈높이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려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선숙 총무회사는 "지금까지 한 영혼 찾아 섬기며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웃들이 머무는 곳, 그곳이 성령이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이사장 이경완 장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우리도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축사를 맡은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뿐 아니라 소외당하고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 뉴욕주에 국제장애인선교회가 설립됐다고 생각한다. 이 설립 취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귀한 국제장애인선교회

"다양성 갖춘 역동적 사회, 개인이 더 풍요한 삶 누릴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불안감의 정도가 유입되는 이민자 수나 집중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은 상대적으로 난민과 테러를 연결 지어 생각하지 않고, 독일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대중의 공포와 이민 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는 분명하다. 어떤 나라는 기존 정치인들이 대중의 불안에 더 잘 대처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부상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것이다. 수많은 이민자와 난민들이 별다른 충돌 없이 잘살고 있는 캐나다가 이 분야의 본보기다.

포퓰리스트들은 종종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도 멕시코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브렉시트 지지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계를 왜곡했다. 물론 사회 문제를 이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현재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가 값싼 노동력 때문에, 또는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이민자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면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게 되는 이민은 세계화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낯선 느낌은 곧 공포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반응이 모두 잘못됐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 사회가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서구 사회는 지나치게 빠른 문화적 변화가 가져오는 위험을 적시하고 대처해야 한다. 이민자 유입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민자 유형을 가려서 받는 것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동화와 통합, 안전망에 대한 투자 확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대한 재교육 역시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이 함께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대중이 근거 없는 혐오가 아닌 팩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민 문제를 둘러싼 이슈에 대해 잘 홍보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특

히 권력을 잡기 위해 대중의 가장 약한 면을 이용하는 대신, 인간의 선한 본능에 호소할 줄 아는 깨어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이민 문제를 넘어서는 날도 자연스레 올 것이다. 현재 이민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세대 갈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외국인이나 자신과 다른 집단에 대해 공포심이 덜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역동적인 사회에서 개인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세대, 열린 국경과 연결된 세상을 당연시하는 세대다. 그 미래로 가는 길에 너무 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서구 사회의 과제일 것이다!

(끝)



# 동부교계 게시판



## 이원상 목사 별세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원로 이원상 목사(사진)가 12월 5일 오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원상 목사는 지난해 8월 식도암 3기 진단을 받고 치료 후 기적적으로 치료됐다고 알려졌으나 재발돼 치료 중 소천했다. 이 목사는 26년간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며 목회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으며, 시드니교회 설립하는 등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주력했다. 고 이원상 목사 고별예배는 9일 오후 7시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으며 발인과 하관예배는 10일 진행됐다.



▲문의: (703)815-1200

## 건국기도회와 시국강연회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 사업회 뉴욕지회와 뉴욕교협, 목사회, 뉴욕평통이 공동 주최하는 건국기도회와 시국강연회가 11일(주) 오후 4시 뉴욕프라이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보우하소서!" 주제로 열리는 기도회 강사는 문무일 국민신뢰회복운동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허평환 전 기무사 사령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부부장.

▲문의: (718)679-7721

## 뉴욕장로연합회 정기총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 정기총회가 12월 19일(월) 오후 6시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개최된다. 식사후 총회가 열리며 이날 예배설교는 허윤준 목사가 맡는다.

▲문의: (718)461-0909

## 크리스마스 거리찬양

UrVine Mission(Urban Prayer Station)이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거리찬양"이 이번 성탄절 에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개최된다. 일시는 12월 2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20분까지. 장소는 타임스퀘어(Duffy Square) 빨강계단(Broadway& 47th street).

▲문의: u3psnyc@gmail.com

## "축복의 사위 캠프"

낮은울타리 필라지부가 주최하는 다음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축복의 사위 캠프"가 12월 26일(월) 오전 11시30분부터 28일(수) 오후 3시까지 필라델피아 Men-O-lan Retreat Center에서 개최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모든 캠프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150달러(15일까지, 이후 180달러).

▲문의: (215)917-2302, (267)474-5133, (646)300-4790

## 사역자 청빙

뉴욕장로교회가 파트타임 초등부 사역자 1명을 청빙한다. 자격은 다음세대 사역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분명하고 M.Div 재학 혹은 졸업생(개혁주의 배경)으로 이종언어 구사를 선호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문의: newyorknypc@gmail.com 선준호 목사



뉴욕목사회 주최 성지순례 첫 공개강좌에서 김경래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2017년 2월 27일-3월 9일 뉴욕목사회 주최 성지순례 첫 공개강좌

제 45회기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의 사업인 성지순례 BLTI Jesus Project 2017(Bible Land Trip Israel & Jordan)를 위한 첫 예비교육이 지난 1일 뉴욕목장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렸다.

김상태 목사는 "출발 전에 탐사 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지식을 습득해 해서 탐사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 2월 중에 두 차례의 강좌를 더 가질 계획이다.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사 김경래 목사(전 전주 대학 부총장, 현 Faith Bible Seminary 부원장)는 총 3회의 예비교육 중 첫 번째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History: Israel-Arab Conflict)와 지리,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 강의했다.

김경래 목사는 "신약과 역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지리와 역사도 밀접하다"며 Halvor Ronning 박사가 제작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뉴욕목사회가 주최하는 BLTI Jesus Project 2017은 내년 2월 27일(월)부터 3월 9일(목)까지 진행된다.

1차 등록은 12월 5일 이미 마감됐으며 2차 등록은 12월 12일, 3차는 18일까지이며 경비는 총 2,430-2,560달러, 목사회 회원은 500달러가 지원된다.

한편 2차 예비교육 공개강좌는 2월 9일(목)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3차 강좌는 16일(목)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646)642-3533, Pcakim@gmail.com 김상태 회장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 뉴욕목사합창단 제 3회 정기연주회

뉴욕목사합창단(단장 김중훈 목사) 제3회 정기연주회가 12월 4일 오후 6시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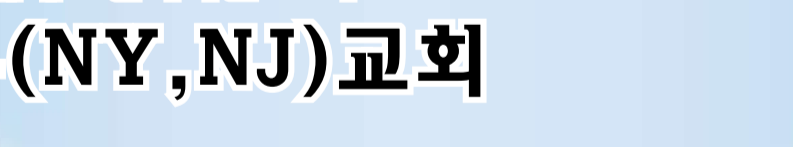
단장 김중훈 목사는 인사를 통해 "바쁜 목회활동 중이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귀한 줄 알아 옥함을 깨닫는 시간을 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됐다"며 "찬양은 음악성과 영성이 어우러져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제사"라고 말했다.

연주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김중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가 누가복음 2장 8-20절을 본문으로 "목자들의 찬송"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진 공연은 뉴욕목사합창단이 이다익 목사의 지휘로 찬양했다. 뉴저지 목사합창단, 뉴욕장로성가단, 밀알여성성교회합창단 등이 특별출연했으며, 마지막에는 4개 팀이 연합으로 찬양을 했다.

특히 단장 김중훈 목사와 뉴저지 목사합창단 지휘자 김중훈 목사의 형제 듀엣은 남다른 앙상블을 선보였으며, 이외에 손순호 오키나와 앙상블, 밀알채미앙상블, 크리스탈 핸드벨과이어, 바이올린 연주 유안나, 여성 듀엣 소프라노 이윤지와 조애실, 클라리넷 앙상블 최동현과 김신혜가 특별출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참석 찬양단들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 "복음의 메아리 사명 잘 감당하길"

## 미주기독교방송국 27주년 기념 후원·감사의 밤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 윤세웅 목사) 창사 27주년 기념 후원·감사의 밤이 12월 5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 과 이사장 겸임인 윤세웅 목사는 "지난 27년간을 지켜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며, 앞으로 27년 더 복음의 메아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많은 후원을 부탁했다.

이날 1부예배는 개회기도 한문수 목사,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방지각 목사, 헌기도 김상태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헌금송송 윌드밀알 혼성중창단, 축사 김홍석 목사(뉴욕교협 회장) 김민선 뉴욕한인회, 사역소개 및 감사의 말씀 윤세웅 사장/이사장, 축도 김형준 목사, 식사기도 한재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복음의 빛나는 자" (롬1:14-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말한 기독교인이 해방돼야 할 다섯 가지(△죄에서 자유함 △사망에서 자유함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 △율법에서 자유함 △저주에서 자유함)에 대해 설명하고 "5가지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빨리 구해야 한다. 복음의 바톤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복음 전도는 주님 지상의 명령이다. 복음전파를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인생최대의 투자다. 복음전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며 빛나는 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만찬과 경품추첨의 시간을 가졌다. KCBN 방송은 전용 라디오, 디지털 티브 WBMC 채널 63.9, 스마트폰 앱(KCBN), 인터넷(kcbsn.us), 전화(712-432-8880)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KCBN 27주년 기념 후원·감사의 밤을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과 후원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문석진 목사가 씨존 스마트폰 강좌 중급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씨존 스마트폰 강좌 중급반 강의 시작 10-24일 매 토요일 낮 11시-12시40분

미주기독교 미디어그룹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중급반 강의를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뉴욕기독교방송국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단체카톡만들기 등 다양한 카톡 중급 기능 활용법, 사진전송, 앱 다운로드받기, 신문/TV/유튜브/방송 듣기, 성경 보기, 와이파이 연결법 등 다양한 기능 등을 배운다.

중급반은 초급반을 수료했거나 스마트폰으로 선교에 활용할 이를 대상으로 한다.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 LG폰) 위주로 강의하지만 아이폰 소지자도 들을 수 있다.

선착순 접수,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한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뉴욕기독교방송 사장).

씨존은 지난 3월 초급반(60기) 종료했다. '스마트폰 쉽게 다루기' 주제로 강의한 초급반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스마트폰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씨존의 컴퓨터강좌는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 미주한인청소년재단, 씨존 기독교, 뉴욕기독교방송(CBSN)이 공동 후원한다.

▲문의: (718)414-4848.

(기사제공: 씨존)

# 뉴욕한인청소년센터, 제9회 바다위십패스티벌 개최

뉴욕한인청소년센터(디렉터 최지호 목사)가 주최한 11월 27일 제9회 바다위십패스티벌이 지난달 27일 뉴욕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청소년센터 찬양부가 열거 가득한 시작찬양부터 참가자들의 준비된 열심과 관람객의 호응이 잘 어우러진 잔치였다.

12팀이 경쟁 혹은 비경쟁으로 참석했으며 창의적이고, 생기발랄한

내용을 춤과 연극적 요소를 가미함으로 젊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감동을 안겼다.

우승은 뉴욕중앙교회, 준우승은 동양제일교회가 차지했고, 참가한 모든 팀에게 각각 200달러의 미션후원금을 수여했다.

또한 이날 10명의 청소년들이 대 통령봉사를 받았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  |  |  |   |  |   |   |
|--|--|--|---|--|---|---|
| <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br>담임목사: 이윤석<br>주일예배: 오전 11:00<br>영양예배: 오전 10:00<br>수요일예배: 오후 8:45<br>새벽기도회: 오후 8:45<br>금요기도회: 오전 9:30<br>성찬예배: 오전 10:00, 토    |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해천<br>주일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양)<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새벽기도: 오전 6:00(월-토)<br>주일학교: 오전 11:00 |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br>담임목사: 정기태<br>주일예배: 오전 11:00<br>주일찬양예배: 오후 1:30<br>주일성경공부: 오후 1:15<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 <b>뉴욕새사람교회</b><br>담임목사: 이종민<br>주일예배: 오전 10:30<br>영양예배: 오전 10:45<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금요찬양예배: 오후 8:30<br>새벽기도: 오전 6:00<br>주일학교: 오전 10:30     |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br>담임목사: 허윤준<br>주일예배: 오전 9: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찬양예배: 오후 1:30<br>주일성경공부: 오후 1:30<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금요기도회: 오후 8:30<br>새벽기도회: 오전 6:00 | <b>뉴욕순복음안드루교회</b><br>담임목사: 이만호<br>주일1부예배: 오전 7:30<br>주일2부예배: 오전 9:00<br>주일3부예배: 오전 11:00<br>주일4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금요(신)예배: 오후 8: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b>뉴욕목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승희<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디너예배: 오후 1:30<br>화요일예배: 오후 10:00<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금요기도회: 오후 8: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 <b>뉴저지성도교회</b><br>담임목사: 허상희<br>주일예배: 오전 11:00<br>찬양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8:10<br>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br>금요기도회: 오후 8:30<br>(매주 1주, 3주)         | <b>리빙스톤교회</b><br>담임목사: 유상열<br>주일예배: 오전 10:50<br>찬양예배: 오전 10:50<br>청년성경공부: 오후 1:30<br>주일학교: 오후 12:30<br>주일학교: 오후 1:30<br>수요일예배: 오후 8:30               | <b>에벤에셀선교회</b><br>담임목사: 최창섭<br>주일예배: 오전 10:45<br>주일찬양예배: 오후 1:00<br>주일성경공부: 오후 1:00<br>주일3부예배: 오후 3: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 오전 6:00(화-토)<br>금요기도회: 오후 9:00 | <b>예사랑교회</b><br>담임목사: 손환근<br>주일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8:30<br>새벽기도회: 오전 6:00  | <b>퀸즈장로교회</b><br>담임목사: 김성국<br>주일1부예배: 오전 8:30<br>주일2부예배: 오전 10:30<br>주일3부예배: 오후 12:15<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금요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  | <b>퀸즈한인교회</b><br>담임목사: 이규섭<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후 1:30<br>NCF영어: 오후 1:30  |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b><br>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                             |
| <b>브라질 새소망교회</b><br>담임목사: 박재호<br>주일1부예배: 오전 8:00<br>주일2부예배: 오전 9:30<br>주일3부예배: 오전 10:30<br>주일4부예배: 오후 2:00<br>주일5부예배: 오후 5:00<br>주일6부예배: 오후 7:00 |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br>담임목사: 최광연<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전 1:00<br>주일4부예배: 오후 3:30<br>주일학교: 주일 12:00                        | <b>칠레 한인연합교회</b><br>담임목사: 왕익상<br>주일1부예배: 오전 11:00<br>주일2부예배: 저녁 7:00<br>수요일예배: 저녁 9:00<br>7:14중보기도회: 아침 7:40<br>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 <b>토론토 가든교회</b><br>담임목사: 김성민<br>주일예배: 오전 9: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양)<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 오전 5:30<br>금요예배: 오후 7:30 |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br>선교사: 임한곤 목사<br>파라과이선교회 회장<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0:30<br>주일3부예배: 오후 12:30<br>주일4부예배: 오후 3:00<br>주일5부예배: 오후 5:30(월-토)           | <b>하와이 행복교회</b><br>담임목사: 이남수<br>주일1부예배: 오전 9:30<br>주일2부예배: 오전 11:15<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수요일예배: 오후 9:30(월-토)<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br>담임목사: 조일구<br>주일1부예배: 오전 9: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br>주일4부예배: 오후 7:00<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금요기도회: 오후 9:00              |



# “기도하는 교협” 이호우 목사 취임

## OC교협 26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한인기독교교회협 의회(회장 민승기 목사) 제26대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4일 오후 5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에서 열렸다. 신임회장 이호우牧사는 취임인사에서 "먼저 26대 교협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

린다"며, "26대 교협은 기도하는 교협으로 가꿔나가겠다. 그래서 회장단을 위시해 전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친근한 교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태종 목사가 기도했으며 윤우경 집사가 성경봉독을, 미주 여성코랄(지휘 오성애 권사)과 남성조이풀합창단(서문목 목사)가 축하했으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협이

되자"(마7:15-2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현철 목사 사회로 열린 2부 축하순서는 민승기 직전회장이 이임사를, 이호우 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했으며 교협기 이상, 공로패, 취임패, 추대패, 그리고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기동 목사가 이사장 인사 및 이사소개, 전중홍 장로가 후원이사장 인사 및 후원이사 소개를 했다.

이어 박희민 목사(전나성영락교회 당회장), 강순영 목사(자마대표), 영길 거주하원의원이 축하했으며 이호우 회장이 신임 임원으로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정영수 목사(OC교협이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26대 OC교협 이취임감사예배에서 이호우 신임회장이 민승기 이임회장으로부터 교협기를 이양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LA사랑의교회에서 열린 교회창립 10주년 오라토리오 루디아 공연이 성황리에 열렸다

## LA사랑의교회 설립10주년 감사 기념음악회 성황 미주초연 오라토리오 루디아 공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교회설립 10주년 감사 기념예배를 3일 오후 7시 버질중학교(한인타운 1가와 버몬트 코너)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오라토리오 '루디아'를 미주에서 최초로 연주했다.

김기섭 목사는 "LA사랑의교회가 탄생한지 10년이 흘렀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저희 교회 구석구석에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땀과 수고, 헌신과 희생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지난 10년간 자발적 헌신과 섬김의 본이 돼준 찬양대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찬양으로 표현하고자 음악회를 준비했다.

이번음악회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성경 퓌거를 바탕으로 지어진 '루디아'를 본 교회 연합찬양대가 소프라노 김은혜, 사라정, 메조소프라노 심현정, 테너 오위영과 함께 불렀다.

특별히 이날 '루디아'를 작사작곡한 김흥천 목사의 둘째 딸과 사위가 참석해 미주최초로 연주된 공연을 관람했으며 공연이 마친 후 이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NTS West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한인목회의 미래와 차세대 컨퍼런스 12일, PCUSA 교단 배경 NTS West 주최

NTS West(New Theological Seminary of the West, 총장 존 딜리아 박사)가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월) 목회자 컨퍼런스를 패서디나의 웨스턴 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개최한다.

미국장로교(PCUSA) 내 남가주 지역교회를 관장하는 남가주-하와이 대회와 그 산하의 로스앤젤레스 노회, 샌퍼난도 노회, 샌가브리엘 노회가 이 세미나를 후원한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1월 30일 오전 11시 패서디나장로교회에서 열렸다.

'A Gathering of Korean American Pastors to Reflect on the Future of Korean American Ministry in Southern California'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주강사로 나서는 이승현 총장(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이 'The Roles of the Immigrant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란 제목으로 1세기 한국이민교회 역할을 소개하며 강연을 한다.

이어 최훈진 목사(PCUSA 산하 전국아시아미국리캐리터십개발부 전 스테프, 신한목자장로교회 임시담임)가 'Passing on the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and Beyond', 강일준 목사(한양장로교회, PCUSA 샌퍼난도 노회장)가 'Educating for the Future'란 제목으로 각각 세미나와 토론을 인도한다.

강일준 목사는 "신학교 교육에서 어려움, 신학에 치우치다보니 졸업후 실천적인 면이 부족하게 된

다. 따라서 이 시대에 어떤 신학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목회방향을 추진해야 하는지가 중요시된다. NTS West는 목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다루어야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학교"라고 말했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NTS West는 PCUSA 신학을 바탕을 한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교 남가주 캠퍼스가 2011년 폐쇄됨으로 인해 세워졌다. PCUSA 교단과 관계성을 가진 신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돼 2012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됐다.

아직 주정부 사립대학교육국(BPPE)의 인가만 취득한 상태이며 M.Div, M.A., D.Min. 등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ATS의 인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업 시작은 2년, 1회 졸업생이 배출된 바 있다.

NTS West는 특정한 지역에 캠퍼스를 마련하지 않고 LA,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벨리의 지역 교회에 교실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최훈진 목사는 "LA의 경우 패서디나장로교회에서 수업이 진행됐다"며 "학기는 쿼터제로 운영되며 각 쿼터당 학생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 교회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학교건물은 앞으로도 마련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학교설립 때부터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이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남가주말선교단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남가주말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에서는 매주 토요일 무료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교생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을 나누어주는 시상식을 10일(토) 오전 11시 율리픽 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3020 Wilshire Blvd #160, LA)에서 갖는다. 이번 시상식은 금상: 46명, 은상: 27명, 동상: 28명, Lifetime Achievement Award: 2명, Congressional Certificate of Recognition: 15명 등 총 118명이 상을 받게 된다.

▲문의: (657)400-9570

### LA사랑의교회 제47기 임직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제4기 안수집사 및 권사 임직예배를 11일(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문의: (213)386-2233

### 중독치유회복 세미나

참빛 상담소(www.truelightcounselingcenter.com)에서는 아래와 같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종교 및 일중독 회복 무료 세미나를 10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글렌데일 한인장로교회(4002 Verdugo Rd, LA)에서 개최한다. 청소년들과 약물중독 및 참자야 발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세미나의 강사는 김현배 약사(약물중독과 예방치료), 권오균 교수(자야발견과 중독회복치유)

▲문의: (818)236-3789, (626)202-5532

### 베데스다대학(원) 동문 송년 및 감사의 밤

베데스다대학(원) 동문(회장 최창수 목사) 송년 및 감사의 밤이 12월 15일(목) 오후 6시 The Rock 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회비는 10달러(성인 1명+성인동반자 1인). 참석자는 예약이 필요하다.

▲문의: (213)327-8095



구세군 나성교회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구세군 나성교회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행사

구세군 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는 11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4403 S.Figueroa st에서 77 Division 경찰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가졌다.

LA 폭동이 일어난 이 곳에서 한 인과의 갈등을 잊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

을 대접했다. 경찰 서장을 비롯한 많은 경찰들과 LA에서 그리고 존 박 목사와 자원 봉사자들이 미리 준비한 300여 원 음식을 함께 나눴다. 또한 이주철 사관은 장소(Shell Gas station)를 제공한 영 김 사장과 함께 매년 이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구세군나성교회)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  |  |  |   |   |  |   |
|--|--|--|---|---|--|---|
|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br/>       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       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       영어예배: 오후 7:30<br/>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br/>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br/>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br/>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br/>       주일 1부예배: 오전 7:45<br/>       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br/>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br/>       수-금요 예배: 오후 7:30<br/>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br/>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br/>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 <h3>나성영락교회</h3>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8:30<br/>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br/>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br/>       수요일예배: 오전 11:30<br/>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성년)<br/>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br/>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br/>       www.youngnak.com</p> |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문수<br/>       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       EM예배: 오전 11:00<br/>       수요일예배: 오후 7:30<br/>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br/>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br/>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br/>       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       영성특별예배: 오전 5:30<br/>       수요일예배: 오전 6:30<br/>       EM, 대학부: 오후 1:30<br/>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br/>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br/>       (Lambert &amp; Puente) / www.nachiban.org</p> |  |   |
|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br/>       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       주일 3부(특별)예배: 오후 12:30<br/>       EM 찬양예배: 오전 10:30<br/>       주일 학교: 오전 10:30<br/>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br/>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br/>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br/>       facebook.com/grscsa</p> |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br/>       주일 1부예배: 오전 7:20<br/>       주일 2부예배: 오전 9:20<br/>       주일 3부(특별)예배: 오전 11:20<br/>       EM 찬양예배: 오후 7:30<br/>       영아권(영소-KDC, 킹덤찬양팀)<br/>       1부: 오전 9:20<br/>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br/>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 <h3>대동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br/>       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br/>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br/>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br/>       www.dkpc.org</p>                         | <h3>등문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삼<br/>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br/>       새벽기도회: 오전 5:30<br/>       주일학교: 오전 6:30(토)<br/>       수요일예배: 오전 10:00<br/>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br/>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br/>       www.stgpc.org</p>   |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br/>       대표: 전영자 목사<br/>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br/>       목요예배: 저녁 8:00<br/>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8990<br/>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p>  | <h3>미주양광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br/>       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br/>       주일오류찬양예배: 오후 1:30<br/>       수요일예배: 오후 7:00<br/>       새벽기도회: 오전 5:30(예배일)<br/>       수요일학교: 오후 4:00</p> <p>Tel: (213)380-9377, 9079<br/>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br/>       주일 1부: 오전 8:30<br/>       (영아)예배: 오전 9:45(영아)<br/>       3부: 오전 11:00<br/>       주일4부예배: 오후 2:00(주요일)<br/>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www.mpcla.com<br/>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br/>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
|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br/>       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       금요예배: 오후 8:00<br/>       주일 학교: 오전 5:45(월-토)<br/>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br/>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 <h3>베델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효<br/>       주일예배 1부: 오전 7:15<br/>       주일예배 2부: 오전 9:15<br/>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br/>       주일학교: 오후 2:00<br/>       성년영양예배: 오전 9:15, 11:30<br/>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br/>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E-mail: beethel@bkc.org<br/>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br/>       www.bkc.org</p>    |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br/>       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       영어예배: 오전 9:00(대학부)<br/>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br/>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br/>       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br/>       수요일예배: 오후 7:30<br/>       목요기도회: 저녁 8:00<br/>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br/>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 <h3>요셉선교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br/>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7:30<br/>       금요예배: 저녁 7:30<br/>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br/>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 <h3>얼바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br/>       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       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br/>       새벽기도회: 오전 5:30(예배일)<br/>       주일학교: 오전 6:00(토)<br/>       수요일학교: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br/>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br/>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 <h3>월셔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br/>       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br/>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주요일)<br/>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br/>       주일학교: 오전 11:00<br/>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br/>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
|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br/>       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       주일 2부예배: 오전 9:20<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       수요일예배: 오후 7:30<br/>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br/>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br/>       은혜새벽기도회: 365일 24시간</p> <p>www.gracemc.com<br/>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br/>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 <h3>주님세계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br/>       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br/>       주일학교: 오전 11:00<br/>       수-금요예배: 오후 7:30<br/>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br/>       성령대령회: 오후 7:20(토)</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br/>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br/>       www.junimchurch.com</p>                  |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br/>       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br/>       주일 3부예배: 오전 1:00<br/>       수요일예배: 오후 7:30<br/>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br/>       1801 S. Grand Ave., L.A., CA 90015<br/>       www.gic.org</p>  | <h3>중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br/>       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br/>       주일 4부예배: 오후 1:45<br/>       목요기도회: 저녁 8:00<br/>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br/>       주일학교: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br/>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br/>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br/>       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       수요일예배: 오후 7:30<br/>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rstonetv.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br/>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br/>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바울<br/>       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영아)<br/>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br/>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성년)<br/>       영양예배: 오전 10:00<br/>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gc.org<br/>       Tel: 310-370-5050, Fax: 310-370-2009<br/>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 L.A.: Tel: (323)665-0009<br/>       Fax: (323)665-0046<br/>       ■ N.Y.: Tel: (718)896-4400<br/>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 “탄핵안처리 국회의원 300명, 바른 판단하게 하소서”

### 국가기도연합, 3일 제6차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 개최

국가기도연합은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6차 미스바 구국 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국회의원 등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회를 인도한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는 9일 표결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위중한 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국 대한민국을의 장래를 생각하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그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는 말씀이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정직한 자의 입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넘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 말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렘의 말을 따르지 않아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면서 “대한민국도 악인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따라가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특검을 통해 거짓과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면서 “대한민국이 특검을 통해 참과 거짓을 바

르게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어둠의 영적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간구하자”고 도전했다.

국가기도연합은 기도회 현장에서 오 목회자의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 설교 동영상도 방영하고 옥 목사의 설교문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은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온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도연합은 옥 목사의 설교를 통해 “대통령이 마음에 안든다, 정치가 안든다며 국가권력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조소하고 조롱하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누가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되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국가지도자로 세우신다”면서 “1000만명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리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 통치권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해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000여명의 참석자들은 “지금 이시간 대중집회에서 어둠의 영적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협하는 잘못된 선전 선동이 대중을 흥분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해 달라”며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를 향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국가기도연합은 오는 10일에도 서울역 광장에서 기도회를 개최하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

## ‘한국교회 연합’ 성탄 선물로 내놓는다

### 한국교회연합추진위 모임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25일 성탄절까지 한국사회에 교회 일치라는 ‘선물’을 내놓기로 했다.

전용재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국가적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게도 교회 분열 때문”이라며 “교회의 분열은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돼 있다. 이 같은 잘못을 자복하고 회

개하며 겸손히 하나 되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이 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 돼야 한다. 성탄절을 한국교회 연합기구의 최종 출범일로 잡고 정관, 임원 구성, 기구명칭, 분부 위치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에 소속된 주요 교단과 기감, 예장합동이 힘을 합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됨을 이뤄야 한다”면서 “한국교

회교단장회의에 소속된 23개 교단이 한국교회의 95%를 차지한다. 주요 교단들이 중심이 돼 한국교회 연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교단 중심의 연합운동을 전개하자고 입을 모았다.

이강평 전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은 “주요 교단이 먼저 하나된다면 다른 교단들도 연합에 함께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도 “올해가 가기 전에 주요 교단이 함께해 한국교회의 연합이라는 성탄 선물을 한국사회에 안기자”고 말했다.

여성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한기총은 이영훈 대표회장

게 통합의 전권을 위임한 상태지만 한교연은 김요섭 한영훈 전 대표회장과 이성희 예장통합 총회장 등에 권한을 맡긴 상태”라면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들 대표가 한교연 전체를 끌고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에 한교연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연합 논의에 4명의 위원을 파송했지만 우리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합논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교연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추진위는 오는 9일 후속 모임을 갖기로 했다

## 미자립교회 지원 활동 시동

### 예장합동, ‘교회자립개발원’ 첫 이사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이 30일 교회자립개발원 창립 법인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01회기 미자립교회 지원 활동 시동을 걸었다. 예장합동은 지난 9월 총회에서 교단 내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로 ‘교회자립개발원’ 설치를 승인한 이후 기존에 운영해왔던 교회자립지원위원

회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발원 창립에 박차를 가해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진행된 이사회에선 임기 2년의 이사장직에 오정현(사랑의교회) 목사를 선출하고 부이사장 5인,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등 임원회 조직을 완료했다. 이사회는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미자립교회 생활비 지원 노회 비율을 60%로 높일 수 있도록 모범 노회 및 거점교회들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이사회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100명을 선발해 2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 1월 중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서울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왔던 농어촌 미자립교회 직거래 장터를 다 도시로 확

대하고, 상시 거래가 가능하도록 총회 홈페이지에 연결망을 구축키로 했다. 지속적인 사업 개발을 위해선 지역 목회자 10인을 위원으로 선임해 연구위원회도 가동한다.

오정현 이사장은 “총회 세계선교회(GMS·이사장 김찬곤 목사)가 세계 선교의 최전방에서 쓰임 받는 것처럼 교회자립개발원이 국내 선교에서 짐을 나눠주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선교사들 연이은 일탈...감독 강화해야

### 캄보디아에 이어 탄자니아에서도 성추문

일부 선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활동 중인 최모(62) 선교사는 지난해 10월 쯤, 현지에 단기봉사차 와 있던 젊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최근 파송단체인 한국예수전도단(YWAM)에 보고했다. 최 선교사는 지난해 귀국해 선교단체 리더들 앞에서 공개 사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YWAM은 29일 자체 징계위원회

를 열어 선교사 파송 취소, 현지에서의 모든 직임과 활동 중지, 한국 내 선교·모금활동 금지, 전문 상담가와 상담 치료 등을 권고했고, 최 선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YWAM은 징계위에 앞서 피해 여성에게 “소속 선교사를 잘 지도하고 돌보지 못한 단체의 책임이 크다.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최 선교사는 현지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뉴비전스쿨’을 운영해왔다. 30년 넘게 활동해온 경험 많은 선교사라는 점에서 선교계의 충격이 크다.

박석건 YWAM 대표는 “선교사가 파송되면 현지 지부로 편입돼 리더의 감독을 받는다”며 “최 선교사는 워낙 오래되고 영향력이 있어서 감독이 어려웠던 것 같다. 느슨해진 틈을 타고 일이 벌어졌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캄보디아 경찰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박모(62) 선교사는 2005년부터 교회 설립 등의 선교활동을 해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박 선교사는 가난한 소녀들과 그 가족들을 교회에서 부양했으며 수년 전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 소녀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박 선교사는 파송단체나 교단 소속이 없었고 현지 한인선교사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독립군’ 선교사였다.

선교계에서는 파송단체나 선교사회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목회자의

일탈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해외의 선교사를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푸념섞인 말도 나온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파송을 받을 때는 경각심을 갖고 현지에 나가지만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보면 긴장을 풀게 되고 틈이 생긴다”며 “파송 단체에서는 문제를 감추려기보다는 징계위 등의 절차를 통해 조치하고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OMP선교회 동원담당 손창남 선교사는 “현지 리더가 동료 선교사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가정과 재정, 사역 내용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며 “현지에서의 관리와 감독, 돌봄이 이루어지는 선교회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는 한 일탈행위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18개 교회를 개척했다. 자두(본명 김덕은)는 스스로 어디서든 크리스천임을 밝히며 건전하고 유익한 노래를 만들어 왔다.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5개 분야만 수상 적임지를 찾았다”며 “세복합 국민대상을 통해 한국교회 위상을 높이고 기독교의 대 사회적 역할을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8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에서 열린다.

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제33대 감독으로 취임했고 현재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감리교전국부흥단,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 등 주요 임원을 맡고 있다.

반포장로교회 소속 두 장로는 한국기독교선업인회(CBMC) 회장으로 중동선교와 교도소선교, 10대 청소년 선교를 위해 헌신해 왔다. 부인 김영숙 권사와 ‘가정사역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최 선교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파송으로 1996년부터 20년간 아프

함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회장은 또 홍재철 전 한기총 대표회장이 낸 제명 무효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날 임원회에서 한국교회의 연합 추진 과정을 보고했다. 한기총 임원회는 이 대표회장에게 한국교회의 연합 추진을 위임한 바 있다. 이 대표회장은 “한기총,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교단 총회, 군소 교단 등을 대표해 10개 교단이 한국교회연합추진위를 구성했다”며 “이들이 한국교회 연

의 통합이 잦았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예배에선 이 대표회장이 설교했다. 그는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신이 말리 깊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말하지 말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특히 한기총이 하나가 돼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면서 “위기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자”고 말했다.

## 동성애 연관성 ‘쉬쉬’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

###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국민일보 진료비 현황 보도

남성 동성애자가 주로 감염되는 에이즈 진료에 매년 800억원 이상의 정부 및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부터 쏟아 부은 재정만 5000억원에 육박했다. 동성애 확산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노동이처럼 불어나는 에이즈 진료비

국민일보가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30일 단독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에이즈 환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60억3700만원이던 진료비는 2015년 810억5100만원으로 경종 뛰었다. 올해 상반기만 442억원이 쓰여 9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찰료, 입원료, 치료비, 검사비로 구성되는 진료비가 5배 증가한 것은 에이즈 환자가 매년 500~800여명씩 불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이즈 확진을 받은 국내 환자 수는 11월 기준 1만2500명이다.

1인당 진료비도 증가추세에 있었다. 2006년 697만원이던 1인당 진료비는 2015년 998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요인은 동성애 확산에 따른 남성 감염자의 급증과 직결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식 보고서에서 ‘에이즈 감염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며 에이즈 감염 취약집단으로 동성애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수진 건강과기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 단체가 시인했듯 에이즈 환자의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면서 “정부가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 쉬쉬하는 바람에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수 급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에이즈로부터 다음세대를 지키고 싶다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정신 차리고 실상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표창원 “최순실 게이트 중심에 기독교 있다”

### 5일 ‘서울인권콘퍼런스’서 주장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16 서울 인권 콘퍼런스’에서 토론자로 나와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보수 기독교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제기했다. 표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표 의원은 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16 서울 인권 콘퍼런스’에서 토론자로 나와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보수 기독교계가 있다”면서 “정치와 종교는 명확한 실제규정과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안을 강하게 저지했던 기독교를 비판하는 과정에 나왔다.

표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주요 야당 후보들에 대해 ‘당신이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공격, 공개적인 십자군 밧기식의 공격들이 있었다”면서 “결국 이것은 차별금지법 입법이라는 것으로 모든 논의가 집약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입법논의가 국회에서 실패한 이유는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로비와 압력 때문이었다”면서 “그 중심에는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종의 타협이라고 할까,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의 논의는 일단 처벌조항을 제외하고 일본처럼 시 조례 등을 통해 혐오발언·집

에이즈 예방에 소극적인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진료비는 전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에이즈 예방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진료비 예산은 33억원 수준”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에이즈 진료비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급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5%씩 지원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배분 원칙에 따라 정부 몫인 5%만 정부가 부담하는 에이즈 진료비라고 소개해왔다. 건강보험 등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의 심각성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한테 에이즈 진료비 예산을 물어보면 줄곧 5%에 해당하는 33억 9000만원이라고 답해왔다”면서 “그 외의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안일한 자세는 홈페이지나 홍보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포스터와 팸플릿 등을 배포하지만 에이즈 주요 전파경로인 동성 간 성접촉의 위험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도 남성 간 성접촉에 따른 남성 감염자의 급증과 직결돼 표현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절차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주 의원은 “에이즈 감염자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국내 에이즈 환자는 OECD 국가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에이즈 감염자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2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10대 초반의 남자 청소년 환자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에이즈 감염의 정확한 원인과 그 위험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제17차 ‘세복합 국민대상’ 수상자 확정

###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에 장학일 목사

세계복음화협의회(세복합·대표회장 이수희 목사)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7차 세복합 국민대상 5개 부문 수상자가 확정됐다. 세복합 국민대상 심사위원회는 1일 “엄정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에 장학일 목사가, 부흥사상에 윤보환 목사, 기업인상에 두상달 장로, 선교인상에

최용락 선교사, 연예인상에 가수 자두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수마을교회 장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수준에 맞춰 공동체를 묶어 주는 밴드(Band)목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전도로 연결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목사는 영광교회를 1998년에 개척, 20여년째 부흥사로 사역해 왔

## 한기총, 연말 행사비용 줄여 소외이웃돕기

### 임원회서 결정...‘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바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임원회를 갖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한국교회의 날’ 행사 비용을 줄여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호텔이 아닌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행사를 갖기로 하고 행사명도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바꿨다. 한국교회의 날은 한기총 연례행사로 지난해 제

26회 한국교회의 날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날 임원회에서 한국교회의 연합 추진 과정을 보고했다. 한기총 임원회는 이 대표회장에게 한국교회의 연합 추진을 위임한 바 있다. 이 대표회장은 “한기총,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교단 총회, 군소 교단 등을 대표해 10개 교단이 한국교회연합추진위를 구성했다”며 “이들이 한국교회 연



# 선교의 창 (67)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구제(救濟)

12월이다. 북반구에서는 눈 오는 겨울이다. 성탄과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배회한다. 끼리끼리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하느라 바쁘다. 가진 자들은 향락에 젖어 술잔을 높이 들 것이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짙다.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이 너무 많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다. 이 때가 되면 그들은 더 추위를 탄다. 마음이 시리다. 더구나 이민자에게 연말은 외롭기 그지없다. 누가 이들을 보듬을 것인가? 교회이다. 교회가 성탄을 맞아 담장 안에서 축하공연으로 애너지들 다 쏟을 일이 아니다.

크리스천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구제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기쁨을 같이하면 배가 되고 고통을 같이 하면 절망이 된다. 이 참에 크리스천들이 취해야 할 구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자.

지 말며 궁핍한 자를 향해 손을 펴라(신15:7-11)고 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뻏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 2:15-17).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히13:16)라는 것이다. 우리 주님도 가는 곳마다 구제 사역을 펼치셨다. 따라서 크리스천은 구제할 의무가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구제 받을 권리가 있다.

**구제대상**  
일반적으로 빵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재정 능력이 안 되어 학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불의의 사고를 만

라진 구제는 거지에게 주는 적선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값싼 구제로 마스크에 자신이나 단체의 이름을 들어 보내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의도와 배치되며 도움을 받는 이에게 부끄럽고 부담을 주게 된다.

**구제의 모범적인 사례**  
자선(慈善) 냄비는 구세군 사관 조지프 맥피(Joseph McFee)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1891년 성탄이 가까워 오던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런 재난으로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 된 천여 명의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생각했었다. 그는 오클랜드 부두로 나아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술을 다리를 놓아 내걸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써 붙였다. "이 국술을 끊게 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탄절에 불운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게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이다. 닷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도울지 모르는 경우이다. 다섯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이다. 여섯째는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받고 직접 돕는 단계다. 일곱째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을 돕되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경우이다. 여덟째는 가장 낮은 단계로서 무뚝뚝한 태도로 돕는 경우이다.

**맺음 말**  
이 세상에서 구제를 가장 잘 하는 민족은 유대인이다. 그들은 철저히 모이고 절약하며 가치 있는 곳에 통 크게 불원한다. 그들에게 구제는 의무요 일상이다. 천주교회도 구제 면에서는 개신교를 앞선다. 존 칼빈은 교회가 '말씀, 성례,

크리스천에게서 구제란 알량한 자선 사업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대 계명의 실천이다. 구제는 받는 자가 주체이며 은밀성을 취할 때 빛이 난다.

나 자립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다. 생활 능력이 없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다. 일을 할 수 없으며 도저히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면서도 게으르고 나타한 자들은 구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오히려 자립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구제의 방법**  
목적의 좋으면 그 방법이 좋아야 한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물에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6:2-4).

구제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외식이다. 외식이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순수성이 사

되었다. 이웃을 돕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던 한 사관의 마음이 오늘날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확장되었다. 구제의 손길은 매년 성탄이 가까워지면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를 타고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다.

**유대인의 8가지 구제원칙**  
유대인들은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구제의 방법에 많은 신경을 쓴다. 상대방을 도울 때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무척이나 배려한다. 여기 8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가장 높은 구제의 단계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동업 또는 직업을 구해 주어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도우는 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 받을 일이 없다. 셋째는 돕는 자는 누구를 도우는 지 알지만

치리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행이란 덕목을 넣지 않았다. 그것은 가치가 가벼워 서가 아니다. 교회가 위의 3가지 항목은 성실히 수행하면 선행은 자연히 열매로 맺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명문화되지 않는 선행은 기독교회에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선행으로 대표적인 것은 구제이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선교와 구제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우리는 구제가 비단 절기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되어야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 구제할 것은 없어도 도둑맞을 것은 있다고 한다. 비록 나의 작은 보화라 할지라도 더 필요한 이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우리 크리스천은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으나 주지 않고도 사랑할 수 없다. 구제는 선교의 연장선에 있다.

jrson007@hanmail.net

## 선교 펴기

### 탄자니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의 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13:12-13).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로 한해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해가 더 저물기 전 동역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 4월에는 베델 단기 팀들이 와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수고와 사랑으로 지역주민들을 섬겨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해주셨습니다.

1500명이 넘는 어른들을 치료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갑작스런 폭우와 강풍으로 텐트가 날아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인내로써 잘 섬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리기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와 이곳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동참해주셨습니다. 응코메 교회, 사택 등 전기, 수도 공사를 포함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지어져 바이시(BAHI CITY)쪽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치푸투카 교회와 사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15,000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교회는 불과 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두개의 교회가 저희 선교부 안에 속해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려오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만든 불로구운 벽돌은 목사님의 사택을 짓는데 사용을 하고 교회는 벽돌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들어가지도 나오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 최대한 빨리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워낙 길이 불편하고 100여 킬로 떨어진 먼 곳이라 모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짐을 싣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7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입니다. 지혜롭게 건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음바라와라 교회 사무엘 목사님은 몇년전, 흠으로 지어진 교회 앞쪽 벽이 무너진 뒤로부터 벽돌로 3년 동안 지어왔습니다. 진작 본인들은 흠으로 지어진 집에 땅 바닥에서 스펀지 매트리스 하나 없이 잠을 자지만 수년 동안 솟을 만들어 팔면서 교회를 벽돌로 지어 놓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붕공사를 마치게 되어 이제 더 이상 햇볕 아래에서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바 교회는 벽돌로 벽을 지어놓은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교회에 지붕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흠보로 브와와니 교회, 판가로와 교회, 치롱구루 교회, 흠보로 마쿠루 교회의 사택 등 건축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사역들을 위해서 눈물과 같이 기도하며 물질로 동역해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시골에 머물러 있는 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간씩 몇 달을 시골에서 건축을 교인들과 함께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오랫동안 시골에 있다 보니 이곳 사정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사입니다. 대개 식사는 우갈리라는 옥수수 가루로 떡처럼 만든 것을 음식으로 먹게 됩니다. 콩조차도 살 수 없는 여건이라 옥수수와 쓴 나물 조금과 소금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이 이곳에서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아치는 바람과 먼지 때문에 입조차 열수 없고, 눈조차도 제대로 뜰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달구어진 햇볕으로 인해 얼굴과 목, 팔은 검게 그으려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장난치는 소리도...

이 암울한 현실 앞에 눈물이 안팎으로 젖어 눈시울을 매웁니다. 차라리 교회 건축을 하지 말고 음식이라도 사 날랐으면 하지만... 오히려 교인들은 음식보다도 비가 오기 전 지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비를 맞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시며 그들의 얼굴에는 마냥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9월에는 은혜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도도마 도를 중심으로 신기다, 알루샤, 모시, 모로고로 등 멀게는 1000킬로미터 넘는 곳에서 100여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서 오신 이재삼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부 안에 가득찬 찬양과 기도소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3박4일의 세미나와 일주일 간의 치통구에서 전도집회, 너무나도 행복해 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 언어인 키스와히리 보다는 이들의 부족언어인 키고고 언어가 그들에게 더 다가가는 지역입니다.

마포고 목사님의 키고고 부족언어로 찬양하는 시간에는 성령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여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모두에게 회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14면으로 계속)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23)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6)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고트리니티대학교신학부 교수)



오늘은 물질만능주의가 가져온 악영향의 하나로도 여겨지며, 그 자체로도 심각한 사회악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Corruption)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고국의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작금 고국의 상황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현 대통령 및 그 정권의 전박함, 그리고 타락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낙심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유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을 가지고 촛불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한인교회들도, 또한 한인 기독교교육을 수행하는 사역자들도 이러한 고국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하지 않고 적극적인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수구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충고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그러다 너만 다치게 될 거야"라는 다소 위협적인 경고를 듣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들은, 이러한 때를 이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부정부패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잘 파악하고 이를 교회와 또한 사회와 잘 소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타인과 사회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심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이익을 얻으면 된다는 의식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부정부패의 현상인 것

바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며, 매우 심각한 죄로서 인식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혹시 어떤 부정부패의 고리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주변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침묵을 깨고, 옳지 않은 일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 즉시 회개하고 그만두라고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뜻이 맞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하면 그 목소리는 더욱 힘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개별적으로 혹은 함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할 때, 우리 사회는-미국사회, 한인사회, 한국사회 공히-이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 부정부패는 사회적 용인이 원인...죄로 인식하고 꼭 근절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며 자정노력 알리고 사회와 소통해야

일련의 관여(Involvement)"를 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이며, 이에 우리 안에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 요즘 특히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인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과연 부정부패 문제의 근본 및 사회적 원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어보고, 교회들이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어떻게 기독교 교육적 관여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라는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들에게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듯합니다. 인간의 역사만큼 오랜 기간 행해져왔고, 그간 부정부패 관련 사안들이 정의롭게 해결되는 일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억울하고 싫어도 이 또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해왔던 듯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아주 작은 한인교회의 일상에서부터 정칙의 "000 게이트"로 불리는 큰 사건들까지 그 스케일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그것도 끊이지 않고 부정부패가 행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기력해져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탓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되고 너무 일상화되어서, 잘못되고 불의한 부분임을 알면서도 이제는 무언가 행동하고 관여하려 해도 심지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실 주변 사람으로부터 "

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점검하여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횡행하게 된 사회적 원인은 뭘니뭐니 해도 사회적 용인이라 하겠습니다. 즉 힘 있는 자들이 불의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치 그래도 되는 양 자랑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절해왔으며, 문제제기의 의지를 마주하면 매수하거나 위협하여 침묵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부정부패에 맞서고자 할 때 탄압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돈과 권력을 조금 나누어 받음으로서 그 부정부패 고리 안으로 흡수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지요. 모든 인간이 그 내적인 죄성, 욕심과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부정부패의 고리들은 여전히 공고하게 이어져왔고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독교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는 근절되어야 하는 악한 것이며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임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사안들에 대해서 "다들 하는데 뭐..."라든지, "이정도야 뭐..."라든지 하는 생각 자체를

는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의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으며 교회 외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정부패의 고리에 아주 공고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사회를 향해 우리가 회개하고 있으며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리 실천 하려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으며 모범을 보이기 위해 애쓰고 눈물로 회개하며 사회의 크나큰 부정부패의 죄악을 도발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를 통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관할 내 제도권 회교가 아니라 지하 가정교회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타락한 정부와 사회에 대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부정부패로 가득한 현실을 고칠 수 있는 정의롭고 깨끗한 기독교를 알려주었고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교회들이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정의롭고 깨끗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부정부패로 찌든들 어둡고 탁한 우리의 사회들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때에 베 에봇을 입었다(삼하6:14-15)

다윗이 제사장들과 달려가서 기본 마음으로 법계를 옮겨줍니다. 특별히 다윗은 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왕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면 왕복을 입고 신하들과 행진해야 하는데 베 에봇을 입고 기뻐 감격하며 법계를 옮기고 있습니다. "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왕의 죄면과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시오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 나를 구속해준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찬양드릴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인데 왕복을 벗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감동하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 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삼하6:16-17)

다윗은 법계를 성막에 옮기자마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도 법계를 옮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 화목제를 드렸는데 지금은 화목제뿐만 아니라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태워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분께만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헌신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 받으십니다. 다윗은 지금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신 이유요 축복을 받아 누리 이유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 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삼하6:18-21)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뛰며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방탕하고 염치없이 몸을 드러내는가?"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 때 다윗은 21절에 상반절에 "내가 지금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뭐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염치없어 보여도 나는 사람의 명예와 체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서 뽐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에게 영예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며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 목 내가 여호와 앞에서 뽐내리라(삼하6:21-23)

본문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을 통일한 왕이요 이스라엘에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진 군주가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군사력이 막강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시절이나 사울에게 쫓겨 광야나 굴속에서 살던 시절이나 지금 찬양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개구리 울 쟁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되면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잘돼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났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 금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삼하6:1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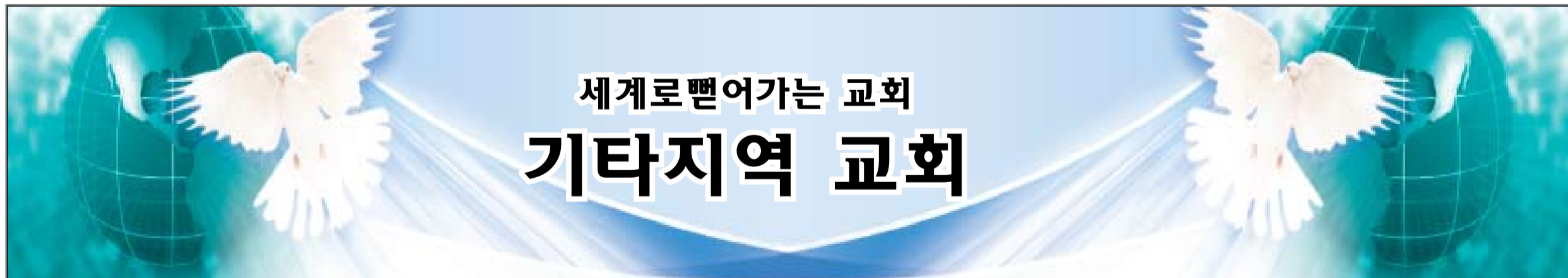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 까요? 미갈의 잘못은 다윗이 힘써 하나님을 섬길 때 함께 참여하지 않고 업신여겼고 구경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또 한가지 미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을 다하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경만 하고 있고 남의 흠을 들여다보

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지는커녕 오히려 다윗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 토 불찌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삼하7:1-3)

오랫동안 기약하여야 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계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잘되고 영원히 복을 받았는가.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왕궁을 짓고 법계는 다윗으로 옮기고 모든 대적을 다 파해주시고...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백향목 궁

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법계는 천막에 바람에 휘날리고 있구나...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탁지역 교회

|  |   |   |  |  |   |  |
|--|---|---|--|--|---|--|
| <b>갈보리장로교회</b><br><br>담임목사: 조용철<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금요오후예배: 오후 2:00<br>수요일기도회: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br>주일예배: 오전 6:00(토)<br>Tel: (702)579-7576, Fax: (702)257-9191<br>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 <b>몽고메리교회</b><br><br>담임목사: 최혜근<br>주일 1부예배: 오전 9: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금요일기도회: 오후 8:00<br>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br>Tel: (610)222-0691, 267-471-7777<br>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br><br>담임목사: 김공운<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30<br>영 아 열 배: 오전 10: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Tel: (215)945-1512, Fax: (215)945-2095<br>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 <b>벤엘교회</b><br><br>담임목사: 백성중<br>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br>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br>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br>주일 4부예배(성당): 오후 1:45<br>EM예배: 오전 10: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Tel: (410)461-1235, Fax: (410)461-6823<br>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br><a href="http://www.bethelchurch.org/">http://www.bethelchurch.org/</a> | <b>보스턴장로교회</b><br><br>담임목사: 장성철<br>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br>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br>금요일기도회: 오후 8:00<br>대학청년부: 오후 1:30<br>주일찬양부: 오후 1:30<br>종교탄압예배: 오전 10시 (한) / 오전 11시 (영)<br>권, 권, 권: 오전 10:45<br>중, 중: 오전 10:45<br>Tel: (508)425-4579, Fax: (508)435-5467<br>2 Main St., Hpkinton, MA 01748                      | <b>샬럿장로교회</b><br><br>담임목사: 나성균<br>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br>주일새벽기도회: 새벽 6:00<br>금요찬양예배: 오후 8:00<br>대학청년부: 오후 1:00<br>수 오 예 배: 오후 8:00<br>주일예배: 오전 10:45<br>중, 중: 오전 10:45<br>Tel: (704)877-6642, Fax: (704)529-0900<br>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br>■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 |
|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br><br>담임목사: 박은일<br>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br>주일2부예배: 오전 11:15<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br>토요일: 오전 6:30<br>Tel: (206)527-0981, Fax: (206)524-1746<br>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br><a href="http://www.kpcseattle.org">www.kpcseattle.org</a> | <b>안다루교회</b><br><br>담임목사: 강준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8:3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새벽예배: 오전 6:00(월-토)<br>Tel: (702)749-9929, Fax: (702)778-6876<br>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br><a href="http://www.ajcchurch.org">www.ajcchurch.org</a>   | <b>알라사 제자들교회</b><br><br>담임목사: 전관수<br>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br>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7:3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예배: 오전 6:00(월-토)<br>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br>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br><a href="http://www.jejeis.com">www.jejeis.com</a>            | <b>앵커리지벨리문교회</b><br><br>담임목사: 유재일<br>주일 1부예배: 오전 10: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영어예배: 오전 11:00<br>주일찬양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Tel: (907)344-6446, Fax: (907)344-3182<br>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br><a href="http://www.bethelchurch.org/">http://www.bethelchurch.org/</a>   | <b>엘파소열리문교회</b><br><br>담임목사: 하태수<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후 7:30<br>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br>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 <b>영생장로교회</b><br><br>담임목사: 백은영<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2:00<br>주일 4부예배: 오후 2:00<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금요일기도: 오후 8:00<br>새벽기도: 오전 6:00(월-토)<br>Tel: (215)542-0288, Fax: (215)542-9037<br>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br>■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 |
| <b>킬린노루교회</b><br><br>담임목사: 김성환<br>주일예배 1부: 오전 9:00<br>주일예배 2부: 오전 10:50<br>수요일예배: 오후 7:00<br>금요일예배: 오후 8:00<br>토요일예배: 오후 3:00<br>새벽예배: 오전 5:30(월-금)<br>Tel: (254)634-8705(H), (254)501-4933(C)<br>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br><br>담임목사: 한세영<br>주일 1부예배: 오전 9:00<br>주일 2부예배: 오전 11: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금요일기도회: 오후 8:00<br>새벽예배: 오전 5:30(월-토)<br><a href="http://www.mpcow.org">www.mpcow.org</a><br>Tel: (703)941-4447, Fax: (703)941-4448<br>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 <b>주예수교회</b><br><br>담임목사: 배헌찬<br>주일 1부예배: 오전 8:00<br>주일 2부예배: 오전 9:3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수요일예배: 오후 11:15<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예배: 오전 6:00(토)<br><a href="http://www.jkc.org">www.jkc.org</a><br>Tel: (804)560-7500, Fax: (804)560-7514<br>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br><br>담임목사: 박장호<br>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br>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br>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br>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br>수 오 예 배: 오후 7시<br>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br>Tel: (253)536-8675, (253)888-9249<br>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br><a href="http://www.lacmcirc.com">www.lacmcirc.com</a>   |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br><br>담임목사: 조진보<br>주일 1부예배: 오전 7:30<br>주일 2부예배: 오전 9:00<br>주일 3부예배: 오전 11:00<br>영어예배: 오전 11:00<br>청년예배: 오후 7:45<br>수요일예배: 오후 8:00<br>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br>Tel: (215)927-0630, Fax: (215)927-0643<br>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br><a href="http://www.kuco.org">www.kuco.org</a> |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br>■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  |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br>■ L.A.: Tel: (323)665-0009<br>Fax: (323)665-0046<br>■ N.Y.: Tel: (718)886-4400<br>Fax: (718)886-0074 |





# 교회역시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 (5) -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모든 자들이 지닌 질문이다. 불신자들이 신앙의 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성적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논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서 이미 기독교 신앙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다.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하는 열망을 지녀야 한다. 무조건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의 마음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질문: 기독교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를 유일하게 참된 신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 ■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초대 교회는 출발과 함께 경험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대부분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동반된 예상된 일들이었다. 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는 침묵하지 않았다. 성경적인 답을 찾아 신앙과 행동의 규범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통적 교리가 형성되었다. 가장 커다란 혼동을 야기한 신학적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다시 말해, 초대 교회를 마감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었다.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이란 방대한 논문을 저술하여 이 문제를 잘 정리하였다. 이 책은 “참회록”과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과 함께 그의 대표적 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삼위일체론”은 모두 15권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0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분서는 서방교회의 전통적 삼위일체 신앙을 체계화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물론 어거스틴의 근본적으로 니케아 신조와 일치한다. 이 책에 드러난 그의 문체와 구성이 아주 세련되어 보이지 않

을 수도 있다. 같은 내용이 자주 반복된다는 느낌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읽다보면 어거스틴이 자신의 신학적 색깔을 강조하거나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크게 노력한 흔적의 일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어거스틴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한 분 하나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지닌 특징 중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읽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삼위일체는 유일 진정한 한 분 하나님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

자 지니셨기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삼위일체 이신 하나님을 즐기는 것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으며, 그것은 총명한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령만으로 충족하다는 듯이 말하는 때가 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만큼으로 충족한 것이다. 그것은 성부가 성

## 오직 성경의 도우심으로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깨닫고 믿을 수 있어

###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론...삼위 ‘종속적’ 관계 단호히 부정

### 인간 영혼구조로 피조물 안에 삼위일체 흔적 있음을 드러내

자였다. 그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의 바탕은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이다. 그는 서두에 자신이 이 책을 쓰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성을 잘못 사용하여 삼위일체 사상을 공격하는 자들의 이론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은 피조의 세계에 속한 자들로서, 초월의 세계에 실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으나, 마치 제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이론을 펼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상관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성경이 피조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린이를 깨는 것과 같다. 성경의 목적은 감정을 자극해서 그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것에 올라서며, 낮은 것을 버리게 만들려는 것이다”(삼위일체론, 1.1).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성경에 근거하여 삼위일체론을 발전시켰다.

령은 동일한 본질이라고 말하며 믿으며 깨닫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설명하겠다”(삼위일체론, 1.4). 하나님은 삼위(Triune), 즉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두 함께 동일한 신성을 소유하였기에 결코 ‘삼중적’(Triplex)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위대성, 선, 영원성, 전능성 등을 지닌 한 분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 되심과 동등하심을 설명함에 있어서 각위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이 아닌 관계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자는 근원은 성부이다.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뜻이다. 또한 어거스틴은 성령의 ‘이중 발출’을 주장하여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이로서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시고, 결국 성령도 하나의 근원을 지닌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한 위가 다른 위에게 ‘종속적’으로 관계하고 있음을 단호하게 부정한다.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자와 성령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성자만으로 충족한 것과 꼭 같다”(삼위일체론, 1. 18). 세 가지 위격을 지닌 한 분의 하나님 안에 분리나 구분됨이 없이 상호간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차이도 없는 그 실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삼위일체론”의 1권만 제대로 읽어도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권부터 8권까지 전반부 역시 상세하게 읽고 이해하여야 하는 이유는, 1권에서 설명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그는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오류를 구체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독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고 있다.

또한 어거스틴은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삼위일체와 관계된 성경구절을 매우 섬세하게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매우 사색적이며 철학적인 내용을 기대한 독자들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남다른 통

찰력으로 풀어나가는 어거스틴의 글을 통해 큰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에게 동일한 신적 속성과 행동이 있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다.

삼위일체의 흔적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의 또 다른 특징은 삼위일체의 흔적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인간의 영혼이 지닌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삼위일체의 흔적이 피조물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 즉, 한 분의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양한 유비를 사용하

면서 일체를 이루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마음이 무엇을 안다고 할 때에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기억과 이해력과 의지라는 이 셋은 세 생명이 아니라 한 생명이며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다. 따라서 이것들은 세 실체가 아니라 한 실체이다”(삼위일체론, 10.18).

이 외에도 몇 가지의 유비를 통해 독자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 하였다. 물론 이러한 예들이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다. 피조물 안에서 발견되는 유비와 초월의 세계에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유비의 사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만큼 성경적 뒷받침이 분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의 수고를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 15권에는 앞의 내용을 요약한 후 현재에는 거울을 보는 듯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중에는 분명히 얼굴을 대하는 듯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어 천국에 까지 이를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간절한 기도로 이 책의 저술을 마친다.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3장 16-17, 마태복음 28:19; 사도행전 5:3-4 고전15: 24-28; 고후 13:14-16

여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안에 일종의 삼위일체가 있다. 어거스틴은 무려 9권부터 14권에 이르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예를 들어보자. 인간의 마음, 그 마음 자체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하고 그 지식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관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 셋은 모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동시에 나뉘질 수 없는 동일한 것이다.

“이 셋이 그 자체로서 완전할 때에는, 마음은 자체를 전체적으로 사랑하며, 자체를 전체적으로 알며, 자체의 사랑을 전적으로 알며, 자체의 지식을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셋은 놀라운 만큼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그러면서도 각각 단독으로 실재하며, 또 합해서 한 실체 또는 본질적 존재이며, 그러나 서로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삼위일체론, 9.8).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간에게 있는 기억, 이해, 그리고 의지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보인다. 이 세 가지는 분명 독특한 개체에 틀림이 없지만, 한 마음으로 작용하

여 신앙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된다. 성경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다. 그러나 간혹 성경에 드러난 사실을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기에 혼동과 회의를 빠지는 경우도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세 개의 위격을 지니셨으나 하나의 본질을 지닌 분이시다.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은, 초월적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비밀스러운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의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통한 이해의 대상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고 경배할 대상이시다.

covenantcho@yahoo.com

# 2016 아주사 송년의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APU동문들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2016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2016 APU 송년의 밤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2월 19일(월) 오후 6시 -9시

장소 아주사 본교 West Campus(Duke building 1F Lobby)  
701 E. Foothill Blvd, Azusa, CA 91702

초청인 APU korean fellowship

동문회 대표 최장식 목사, 재학생대표 김진형 전도사

문의: 동문회 대표 최장식 목사 (818)331-5478, 회계 김사라 전도사 (310)988-0099



설교: 차광일 목사 (한빛성결교회)

## 2017년 APU한인동문회 주최 세미나

- 2017년 1월23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요한계시록(강사: 이상명 박사)

- 2017년 3월10일(월) 오전 10시-오후 5시  
사도행전 선교적 교회론(강사: 박명하 선교사)

장소: 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센터  
(3580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회비: \$30(각)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Alumni Korean Chapter



AZUSA PACIFIC  
UNIVERSITY